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 연구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HANSUNG UNIVERSITY

2026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정 혜 린

HANSUNG
UNIVERSITY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노정은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 연구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Design of Vocabulary Practice Activities to Improve the Vocabulary Ability of Korean Language Learners
-Focusing on Intermediate-Level Learners-

HANSUNG UNIVERSITY

2026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정 혜 린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노정은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 연구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Design of Vocabulary Practice Activities to Improve the Vocabulary Ability of Korean Language Learners
-Focusing on Intermediate-Level Learners-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6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정 혜 린

정혜린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이 은 희 (인)

심 사 위 원 김 윤 주 (인)

심 사 위 원 노 정 은 (인)

HANSUNG UNIVERSITY

국 문 초 록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 연구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정 혜 린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을 통해 학습자가 배운 어휘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어 중급 학습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어휘 학습량에 따라 어휘 학습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고, 이는 학습 정체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어휘 교육은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향상을 목표로 삼는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한국어 능력의 목표에 따라 학습자의 어휘 능력은 어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휘 연습을 통해 실제 어휘 사용까지 도달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유의미한 어휘 연습활동 구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어 이론적 고찰과 기존의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와 어휘 능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위한 어휘 교수·학습의 단계와 연습활동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 3장에서는 현황 파악을 위해 중급 통합교재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은 크게 6가지로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연습활동 유형의 다양성, 학습 목표 어휘의 반복 활용 여부, 어휘 배경지식을 활용한 연계 학습 유도, 언어기능과의 통합성, 실제성 있는 자료 활용이다. 4장에서는 교재 분석 결과에 따른 보완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8가지의 한국어 어휘 연습활동 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이해-산출의 원리로,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배운 어휘를 이해하고 스스로 산출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연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유의미적 산출 활동의 원리로, 유의미한 연습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실생활에서의 기능 수행을 실현하는 어휘 연습활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는 단계 설정의 원리로, 어휘 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교실 안에서의 어휘 연습활동은 '인지 및 확인 단계', '맥락화 단계', '사용 단계'의 각 단계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는 단계적 절차의 원리로, 어휘 연습활동은 '인지 및 확인 단계-맥락화 단계-사용 단계' 세 단계의 순서에 따라 학습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반복성의 원리로, 학습자가 연습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배운 어휘를 여러 번 접하고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여섯째는 배경지식 연계의 원리로, 학습자의 어휘 습득을 돕기 위해 기존에 배운 어휘를 활용하여 어휘 배경지식과 연계된 연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곱째는 언어기능 통합의 원리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어휘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언어기능과 통합된 어휘 연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덟째는 실제성의 원리로, 학습 목표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을 위해 실제성 있는 의사소통 담화 상황에서의 연습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마련한 어휘 연습활동 구성 원리에 따라 '인지 및 확인 단계-맥락화 단계-사용 단계'의 어휘 연습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어휘 연습활동의 유형과 실제 어휘 연습활동 구성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어휘 교육 방안 연구의 범위에서도 특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휘 연습활동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실질적인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해 유의미한 단계적 어휘 연습활동을 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 한국어 어휘 교육, 어휘 교육 방안, 어휘 능력, 어휘 연습활동, 어휘 연습 단계, 중급 학습자

HANSUNG UNIVERSITY

목 차

I. 서 론 ·····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1.2 선행 연구 ····· 2

II. 이론적 배경 ····· 8

2.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어휘 능력 ····· 8
2.2 어휘 교수·학습의 단계 ····· 17
2.3 어휘 활동의 유형 ····· 21

III. 한국어 교재 어휘 연습활동 분석 ····· 27

3.1 분석 대상 및 기준 ····· 27
3.2 교재 분석 내용 ····· 34
3.2.1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 34
3.2.2 연습활동 유형의 다양성 ····· 44
3.2.3 학습 목표 어휘의 반복 활용 여부 ····· 55
3.2.4 어휘 배경지식을 활용한 연계 학습 유도 ····· 58
3.2.5 언어기능과의 통합성 ····· 60
3.2.6 실제성 있는 자료 활용 ····· 62
3.3 한국어 교재 분석 결과 ····· 65

IV. 한국어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 ····· 70

4.1 어휘 연습활동 구성 원리 ····· 70
4.2 교실 수업 환경에서의 적용 방안 ····· 72
4.2.1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유형 ····· 72
4.2.2 단계별 연습활동 구성의 예시 ····· 79

V. 결 론 ····· 88

참 고 문 헌 ····· 91

ABSTRACT ····· 96

HANSUNG UNIVERSITY

표 목 차

[표 2-1] 어휘력/어휘 지식/어휘 능력에 대한 시각 및 개념 정리 ····· 10
[표 2-2] Nation(2001:27)의 어휘 지식 구성 항목 ····· 11
[표 2-3] 이영숙(1997:201)의 어휘력의 구조 ····· 12
[표 2-4] 강현화·원미진(2017:46)의 어휘 능력 구성 요소 ····· 14
[표 2-5] 한국어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 ····· 16
[표 2-6] 선행 연구에서의 어휘 연습활동 단계 구분 ····· 19
[표 2-7] 박건숙(2006:36-38)의 어휘 학습활동 유형 ····· 21
[표 2-8] 이해영(2006:34-35)의 어휘 학습활동의 유형 ····· 22
[표 2-9] 김윤주(2022:192)의 어휘 학습활동 유형 ····· 23
[표 2-10] 류향화(2017:133)의 어휘 학습활동의 유형 ····· 23
[표 2-11] 어휘 연습활동의 유형 ····· 26
[표 3-1]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 ····· 28
[표 3-2] 이해영(2006:28-29) 교재의 어휘 학습 방식 점검 목록 ····· 29
[표 3-3] 박수현(2008:23) 어휘 교재의 학습활동 분석 기준 ····· 30
[표 3-4] 오은화(2019:32) 어휘 교재의 과제 분석 기준 ····· 31
[표 3-5] 강현화·홍혜란(2009:11-16) 어휘 학습용 워크북 개발 원리 ····· 31
[표 3-6] 어휘 연습활동 분석 기준 ····· 33
[표 3-7] A 교재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 36
[표 3-8] B 교재 3급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 38
[표 3-9] B 교재 4급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 38
[표 3-10] C 교재 3급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 40
[표 3-11] C 교재 4급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 40
[표 3-12] D 교재 3급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 42
[표 3-13] D 교재 4급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 43
[표 3-14] 교재별 어휘 연습활동 유형의 다양성 ····· 45
[표 3-15] 선택하기 유형 예시 ····· 46
[표 3-16] 연결하기 유형 예시 ····· 47

[표 3-17] 분류하기 유형 예시 ····· 47
[표 3-18] 바꿔/고쳐쓰기 유형 예시 ····· 48
[표 3-19] 빈칸 채우기 유형 예시 ····· 48
[표 3-20] 순서 매기기 유형 예시 ····· 49
[표 3-21] 문장 만들기 유형 예시 ····· 49
[표 3-22] 구어 산출하기 유형 예시 ····· 50
[표 3-23] 유의 관계 활용 연습활동 예시 ····· 59
[표 3-24] 반의/상하 관계 활용 연습활동 예시 ····· 60
[표 3-25] 실제성을 살릴 수 있는 자료 예시 ····· 62
[표 3-26] B 교재 실제성 자료 예시 ····· 63
[표 3-27] C 교재 실제성 자료 예시 ····· 64
[표 4-1] 어휘 연습활동의 구성 원리 ····· 72
[표 4-2] '인지 및 확인 단계' 연습활동의 유형 ····· 73
[표 4-3] '맥락화 단계' 연습활동의 유형 ····· 75
[표 4-4] '사용 단계' 연습활동의 유형 ····· 77
[표 4-5] 연습활동 유형별 활용 가능 단계 ····· 78
[표 4-6] 학습자 수준 및 어휘 학습 내용 설정 ····· 80
[표 4-7] 활동 2 듣기 스크립트 ····· 83
[표 4-8] 어휘 연습활동 구성 예시 종합 ····· 86

그 림 목 차

[그림 2-1] 김명광(2017:48)의 어휘 지식의 범위 ····· 15
[그림 2-2] Brown·Payne(1994)의 새로운 어휘 학습의 과정 5단계 ····· 17
[그림 2-3] 신형욱(2010)의 어휘 교수·학습의 과정 ····· 19
[그림 2-4] 어휘 연습활동의 세 단계 ····· 20
[그림 3-1] 문어 산출하기 유형 예시 ····· 51
[그림 3-2] 단원별 어휘 연습활동 유형의 구성 양상(3급) ····· 52
[그림 3-3] 단원별 어휘 연습활동 유형의 구성 양상(4급) ····· 54
[그림 3-4] A 교재 어휘 반복 활용 예시 ····· 56
[그림 3-5] 어휘 반복 활용 연습활동의 학습 형태 ····· 57
[그림 3-6] A 교재 영화 포스터 시각 자료 ····· 63
[그림 3-7] D 교재 강의 계획서 자료 ····· 65
[그림 4-1] 어휘 연습활동 구성 개요 ····· 79
[그림 4-2] 활동 1 인지 및 확인 단계 연습활동 ····· 81
[그림 4-3] 활동 2 인지 및 확인 단계 연습활동 ····· 82
[그림 4-4] 활동 3 맥락화 단계 연습활동 ····· 84
[그림 4-5] 활동 4 사용 단계 연습활동 ····· 85

Ⅰ.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교육에 대한 연구로,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을 통해 학습자가 배운 어휘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외국어로서 한 언어를 학습할 때 그 첫 시작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어휘 학습이다. 강현화(2013)에서는 어휘를 통해 발음을 연습하고 어휘 간의 관계를 통해 문법을 학습하며, 언어별 특성을 지닌 어휘가 문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언어교육에서의 어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어휘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학습자들 대부분이 어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은영, 2015:112). 이에 따라 효과적인 어휘 교육을 위한 교실 안에서의 어휘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실 수업에서 교사의 설명을 듣고 의미를 단기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학습 어휘를 제대로 익혔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의사소통에서 학습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반복과 연습을 통해 학습 어휘를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문법 교육은 '도입-제시·설명-연습-활용'의 단계로 정형화된 단계를 갖추고 있는 데에 반해 어휘 교육은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어휘 교수·학습에서 수업의 지침이 되어 주는 교재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재는 학습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학습자와 교사에게 학습의 시작과 진행에 대한 방법을 알려 준다. 그러므로 잘 설계된 교재는 교재 자체만으로도 효과적인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교재는 교실 언어활동과 의사소통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 기법이 제시되어

비교적 덜 숙련된 교사들에게 방법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재는 학습 내용과 전략,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이해영, 2006:27-28).

조현용(2000: 110)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분야로 어휘를 꼽았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사 인원의 50%에 해당하는 학생이 어휘를 선택하였고, 한국어 능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는 조사 인원의 56%에 해당하는 학생이 어휘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의사소통 시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응답에 어휘를 선택한 비율을 보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 사이의 차이가 가장 컸다. 이처럼 중급 단계에서 급격히 늘어난 어휘 학습량은 중급 학습자들이 겪게 되는 학습 정체기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급 단계에서보다 중급 단계에서의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 어휘 교육의 비중도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휘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이 증가하는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교육에서의 연습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어휘 연습활동은 학습자가 배운 어휘를 교실 밖에서 사용하는 단계까지 다다르기 위해 실질적인 어휘 능력을 향상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국어 통합교재에 나타난 어휘 연습활동을 분석하여 도출된 보완점을 바탕으로 실제 어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 연습활동 구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특히 학습자들이 배운 어휘를 실제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데까지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그 방

법으로써 대학 기관의 통합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휘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 방안’, ‘한국어 교재를 통한 어휘 교육 연구’, ‘어휘 학습활동 유형 개발’로 나누어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어휘 교육에서도 어휘 연습단계에 초점을 두었으나 어휘 교육 방안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우선으로 하였다. 어휘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 방안 관련 연구에는 조현용(2000), 문금현(2002), 신형욱(2010), 문금현(2011), 이은영(2015), 박배식(2022)이 있다.

공통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나, 특히 조현용(2000)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중심 교수법이 이루어져야 함을 논했다. 어휘 교육의 역사와 교수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어휘 교육 현황의 지표가 되는 교재를 분석하여 어휘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다양한 학습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 86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질문하였는데 50%의 학습자가 어휘를 선택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중심 교수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은영(2015)에서도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어휘 교육의 기초가 되는 기존의 이론적인 접근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수업 전 단계, 수업 시간, 수업 후 단계로 구분하여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 어휘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은영(2015)은 교실 안팎에서의 학습 단계를 제시하였다면 신형욱(2010)에서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어휘 선정과 어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어휘 교수·학습의 과정을 “도입과 이해”, “기억과 저장”, “활용 연습”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어휘의 기억과 저장의 단계에 해당하는 어휘 연습 방법은 “인지적 어휘 연습”과 “상황-화용론적 연습”으로 구분하였다.

문금현(2002), 문금현(2011), 박배식(2022)은 어휘 교육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문금현(2002)에서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의 연어 학습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연어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을 초·중·급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재 분석과 한국어 문어 및 구어 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연어 학습 목록을 선정하였다. 또한 학습 목표와 연어 학습 목록, 학습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단계별 연어 학습 목록은 분석 자료에서의 출현 빈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문금현(2011)은 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을 논하였다. 어휘장을 활용하면 하나의 의미장으로 묶일 수 있는 어휘의 학습과 관련 어휘를 활용한 유의어 및 반의어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어 교육용 어휘장의 유형을 기초 어휘장, 기본 어휘장, 문화 어휘장으로 분류하였고 어휘장 하위 주제에 따른 어휘 목록을 제시하였다.

박배식(2022)은 교사가 어휘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학습자에게 그 특성에 따라 어휘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체계성, 구조성, 의미성, 사회언어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한국어 어휘의 특성을 살폈다. 또한 교사가 단순히 어휘의 뜻을 설명하고 학습자는 그 뜻을 암기하는 학습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휘 게임을 제시하였고 교사가 게임을 통한 수업을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게임 후 활동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과정까지, 각 단계에 따른 유의점을 설명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교실 환경에서 실제 나타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문법 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교실 현장에서 어휘 중심 교육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어휘 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특히 중급 학습자 대상 어휘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 안에서의 어휘 연습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교재는 교실 현장에서 교사의 어휘 교육 및 학습자의 학습 방법에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교재의 역할은 어휘 교육에서 있어 크게 작용할 수 있기에, 교재를 함께 다루는 어휘 교육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재를 통한 어휘 교육 연구에는 오미정(2004), 이해영(2006), 박수현(2008), 강현화·홍혜란(2009), 이유경(2018), 오은화(2019)가 있다.

오미정(2004)은 조항록(2003)[1]에서 한국어 분리 교재와 관련한 교재 개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서 나아가 교사와 학습자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초급용 어휘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휘 교재의 요건과 설계를 제시하였는데, 학습자의 어휘 습득과 어휘 특성을 고려한 어휘 선정과 어휘 제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오은화(2019)는 중급 학습자가 어휘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가 학습용 한국어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목적으로 두었다. 교재 분석과 중급 학습자 대상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교재 개발의 원리와 단원 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재 개발의 원리는 교재 구성, 단원 구성, 어휘, 과제의 4가지 항목에 따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입-어휘 제시-연습문제-자가 학습 평가의 절차에 따른 단원 구성의 실제를 보였다.

강현화·홍혜란(2009)은 어휘 전문 교재의 부재를 보충하고자 한국어 학습자의 자가 학습과 숙달도별 학습이 가능한 어휘 학습 교재의 모델을 보이는 데에 목적을 둔 자가 학습용 어휘 워크북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의 어휘 학습용 워크북의 연습활동 문항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와 어휘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10가지의 어휘 학습용 워크북 개발 원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원리에서 제시한 연습 활동의 단계에 따라 워크북 개발의 실제를 보였다.

이유경(2018)에서는 1980년대 이후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어휘 제시 양상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크게 실러버스에 목표 어휘 명시, 목표 어휘, 새 단어로 분석 항목을 구분하여 분석하여 각 시기별 어휘 제시 양상과 시기에 따른 변화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시기별 한국어 교재의 특징을 밝히고 한국어 교재의 어휘 영역에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지 단계, 확인 및 강화 단계, 사용 단계의 세 단계 구성으로 워크북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해영(2006)에서는 의사소통적인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해 기존 교재의 어휘와 문법 영역을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어휘 학습 및 문법 학습 유형을

1) 조항록. (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교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교재 개발의 현황과 주요 쟁점. 『한국어 교육』, 14(1), 265-281.

제안하였다. 어휘 학습활동은 어휘 초점 활동과 말하기·듣기·읽기·쓰기 통합 활동으로 나누어 활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휘 선택의 기준, 학습자의 요구 반영, 단계별 어휘 학습량, 어휘 주제의 다양성, 새로운 어휘의 충분한 반복 및 재활용, 다양한 연습 방법 제공, 연습활동의 어휘 구조와 어휘 간의 관계 이해 가능성 여부, 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 개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교재의 어휘 학습 영역 점검 목록을 제시하였다.

박수현(2008)은 언어 학습 전략을 활용한 어휘 활동 및 연습 문제를 통해 학습자의 어휘 장기 기억과 사용 어휘로의 어휘 습득을 돕는 어휘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교재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마련한 어휘 교재 분석 기준에 따라 교재 분석을 하여 교재 구성의 원리를 제안했다. 그리고 어휘 제시 단계, 연습 및 활용 단계, 확인 및 심화 단계로 한국어 어휘 교재 단원 구성의 실제를 보였다.

어휘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해 오미정(2004), 오은화(2019)는 큰 틀에서 어휘 학습이 중심이 되는 한국어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재 개발을 위한 요건과 원리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교재의 구성을 다루다 보니 어휘 연습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및 활용 방안까지 제시되기는 어려웠다. 여러 연구에서 특정 학습자군이나 학습 목적에 따른 어휘 교재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재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실 내에서의 어휘 연습 단계와 연습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 학습활동 유형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학습자 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된 활동 유형을 다룬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어휘 학습활동 유형에 대한 연구는 류향화(2017), 고신우(2017), 조혜연·우인혜(2022)가 있다.

류향화(2017)는 아동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어휘와 문법 학습활동 유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성인 학습자에 비해 아동 학습자는 명시적인 제시나 분석을 통한 학습이 어려울 수 있기에 학습활동을 통한 학습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아동의 인지 발달 이론과 아동 대상 한국어 교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을 위한 어휘 및 문법 학습활동을 개발하였다.

고신우(2017)는 과업 기반 언어교육을 바탕으로 어휘 교육을 위한 상호활동 유형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호활동을 구성할 때는 학습 목표와 학습자의 흥미, 어휘량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모 교육 단계,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에 따라 어휘 교육을 위한 상호활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조혜연·우인혜(2022)는 어휘 복습 교육 방안에 초점을 두어 어휘장 이론을 활용한 초성 게임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는 단계가 아닌 복습 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초성으로만 제시된 주제어를 순차적으로 제시된 4개의 힌트어를 통해 맞추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힌트어는 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것에서 점차 직접적인 것으로 학습자에게 제시된다.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은 연구자의 관심이 깊은 분야이며,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학술지에도 수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허예인·조현용, 2023:212). 한국어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어휘 교육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배운 어휘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의사소통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휘 교육 단계 중에서도 연습 단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어휘 학습량이 급증함에 따라 어휘 학습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현장에서 어휘 연습활동이 효과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기존의 한국어 통합교재를 분석하고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어휘 능력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를 이해하고 한국어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고, 어휘는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 요소이다. 어휘 교육의 목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모든 영역에 있어 의사소통의 시작점인 어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어휘 능력을 향상한다는 것은 어휘를 정확하게 많이 아는 것인가,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인가 하는 지식의 관점과 구사 능력의 관점에서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양하다. 어휘 능력은 어휘력, 어휘 지식이라고도 혼용되어 불리며 용어에서부터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나타난다.

김광해(1997)는 어휘력과 어휘 능력을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 구분하여 다른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어휘력은 양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보유하게 된 단어의 양”을 뜻하며, 어휘 능력은 질적인 능력을 함의하는 용어로 “어휘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능력”을 의미한다. 두 용어를 다르게 정의하였지만 당시는 어휘 능력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였음에 따라 어휘력이 두 개념을 포괄한다고 바라보았다. 또한 이영숙(1997), 이정민·김영주(2010), 김명광(2017)에서도 어휘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영숙(1997)은 어휘력을 “어휘에 대한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양적 어휘력과 질적 어휘력으로 나누어 구조를 정리하였다. 이정민·김영주(2010)은 어휘를 안다는 것은 어휘의 기본적인 뜻과 함께 다의적인 뜻을 이해하고 맥락적 쓰임과 적절한 공기 관계의 이해를 포괄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어휘력을 “어휘 지식의 깊이”라고 정의하였다. 김명광(2017)은 어휘력을 “어휘 지식의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어휘력의 범위는 어휘 지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어휘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에는 신명선(2004, 2008), 원미진(2013), 구본관 외(2014), 이경(2015), 정운규(2021)가 있다. 신명선(2004)

은 아는 것(지식)과 할 수 있는 힘(능력)은 완전히 동일한 것일 수 없다고 언급하며 지식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어휘력이라는 용어보다 어휘 능력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신명선(2004)에서는 어휘 능력을 “어휘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신명선(2008)에서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떤 대상이나 일, 현상 등을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명명하거나 명명화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구체화하였다. 원미진(2013)은 어휘 능력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알아 사용하며,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의미를 추리해 내거나 지시적, 문맥적, 비유적 의미 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어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어휘와 관련된 모든 지식을 어휘 지식이라고 하였다. 구본관 외(2014)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 중심적인 성격으로 인식되는 어휘력 대신 어휘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신명선(2008)의 정의를 인용하여 언급하였다. 이경(2015)은 한국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교육과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어휘 교육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어휘 능력을 정의하였다. 이경(2015)에서 정의한 한국어 어휘 능력은 “자신의 모국어 어휘 지식 및 경험 세계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한국어 어휘와 상황 맥락에 따른 어휘의 다양한 사용역(register)을 알고 의사소통 목표와 상황에 맞게 담화를 구성해 나가는 전략적이고 역동적인 능력”이다. 정운규(2021)에서는 어휘 지식을 갖추는 것이 그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선 이경(2015)의 논의에 주목하여 어휘 능력은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한국어 어휘를 둘러싼 모든 내·외적 지식을 바탕으로 맥락과 사용역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존 연구에서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어휘력과 어휘 지식, 어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했다. 이들을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채택한 용어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의 시각과 개념 정의를 아래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 어휘력/어휘 지식/어휘 능력에 대한 시각 및 개념 정리

	연구자	용어 정의	
유사개념	이영숙(1997)	어휘력	어휘에 대한 지식
	이정민·김영주(2010)		어휘 지식의 깊이
	김명광(2017)		어휘 지식의 수준
	민병곤 외(2020)	어휘 능력	“어휘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으로 형태와 의미, 용법에 관한 지식,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
구분개념	김광해(1997)	어휘력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보유하게 된 단어의 양”(양적인 능력)
		어휘 능력	“어휘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능력”(질적인 능력)
	신명선(2004, 2008)	어휘력	어휘에 대한 지식에 상당 부분 치우쳐 있음
		어휘 능력	“어휘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2004)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떤 대상이나 일, 현상 등을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명명하거나 명명화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2008)
	원미진(2013)	어휘 지식	어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어휘와 관련된 모든 지식
		어휘 능력	“단어를 정확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알아 사용하며,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의미를 추리해 내거나 지시적, 문맥적, 비유적 의미 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구본관 외(2014)	어휘력	일반적으로 지식 중심적인 성격으로 인식됨
		어휘 능력	“어휘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경(2015)	어휘 능력	“자신의 모국어 어휘 지식 및 경험 세계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한국어 어휘와 상황 맥락에 따른 어휘의 다양한 사용역(register)을 알고 의사소통 목표와 상황에 맞게 담화를 구성해 나가는 전략적이고 역동적인 능력”
	정운규(2021)	어휘 지식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개별 어휘의 의미에서부터 형태론적 지식, 음운론적 지식, 구조적 지식, 화용적 지식과 더불어 다른 어휘와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어휘 능력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한국어 어휘를 둘러싼 모든 내·외적 지식을 바탕으로 맥락과 사용역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어휘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에 힘을 싣고자 한다. 어휘력과 어휘 지식은 어휘의 의미와 쓰임에 대한 정보[2]를 아는 ‘지식’으로서의 관점에 가깝지만, 어휘 능력은 ‘지식을 통한 구사 능력’으로서의 관점에서 자신이 가진 어휘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에 맞춰 실질적으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어휘력과 어휘 지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능력을 ‘한국어 어휘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줄 아는 것을 가리키는지, 어휘 교육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도달점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다.[3]

Nation(2001)에서는 어휘 지식을 구성하는 항목을 크게 형태, 의미, 사용의 영역으로 나누고 세부 항목에서 수용적 지식(R)과 생산적 지식(P)의 측면에서 나누었다.

[표 2-2] Nation(2001:27)의 어휘 지식 구성 항목[4]

형태	음성 언어	R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가?
		P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가?
	문자 언어	R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P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
	단어 구성소	R	단어에서 어떤 구성소를 인식할 수 있는가?
		P	의미를 표현하는 데 단어의 어떤 구성소가 필요한가?
의미	형태와 의미	R	이 단어의 형태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P	이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어떤 단어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가?
	개념과 지시 대상	R	이 개념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P	이 개념이 어떤 항목을 지시할 수 있는가?
	연상 관계	R	이 단어가 어떤 단어들을 연상시키는가?
		P	이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2) 앞서 살펴본 기존의 논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어휘의 의미와 쓰임에 대한 정보의 구체적인 양과 범위, 수준과 깊이는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어휘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존의 연구를 기술할 때는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사용	문법적 기능	R	이 단어는 어떤 패턴으로 출현하는가?
		P	이 단어를 어떤 패턴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연어 관계	R	이 단어가 어떤 단어, 어떤 단어 유형과 함께 출현하는가?
		P	이 단어를 어떤 단어, 어떤 단어의 유형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가?
	사용 제약	R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P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R(receptive knowledge): 수용적 지식, P(productive knowledge): 생산적 지식

이전 Nation(1990)에서는 어휘 지식을 크게 형태, 위치, 기능, 의미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에 어휘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5]과 다르게 Nation(2001)은 형태, 의미, 사용으로 구분하여 어휘 지식에서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항목은 수용적 지식과 함께 생산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이 점에서 어휘 교육은 학습자가 어휘를 알고 이해하는 능력과 표현하는 능력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또한 어휘 능력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었다. 국어 교육 분야 연구로는 이영숙(1997)과 신명선(2004)를 살펴보았다. 이영숙(1997)은 국어 교육에서 바라보는 어휘력과 어휘 교육에 대한 연구로 어휘력이란 무엇이며 어휘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이영숙(1997)에서는 어휘력의 구조를 크게 양적 어휘력과 질적 어휘력으로 나누었다. 양적 어휘력은 말 그대로 알고 있는 어휘의 양을 의미한다. 질적 어휘력은 다시 언어내적 지식과 언어외적 지식으로 나뉘고 하위 세부 항목으로 나눠진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이영숙(1997:201)의 어휘력의 구조

양적 어휘력	어휘의 양

4) 정운규(2021:25-26) 재인용.

5) Nation(1990:31)에서는 어휘에 대한 지식을 형태(구어/문어), 위치(문법구조, 공기관계), 기능(빈도, 적절성), 의미(개념, 연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 항목을 수용적 지식과 생산적 지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질적 어휘력	언어 내적 지식	선언적 지식	- 형태에 대한 지식(발음과 철자, 단어의 구조) - 의미에 대한 지식(여러 가지 종류의 의미, 다른 단어들과의 의미 관계) - 통사에 대한 지식(단어의 품사, 연어 관계, 호응) - 화용에 대한 지식(상황에 따른 사용의 제약, 단어의 사용 효과)
		절차적 지식	- 단어 처리 과정에 대한 수행적 정보에 대한 지식 - 단어 처리 과정에 대한 행동 목록에 대한 지식 - 빠르고 효과적인 단어 처리에 관한 지식
	언어 외적 지식	- 단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 - 단어에 대한 일화적 기억 - 단어의 원어에 대한 지식 - 단어의 어원에 대한 지식	

이영숙(1997)에서 어휘력을 “어휘에 대한 지식”이라고 정의한 것과도 연관이 되어, 어휘력의 구조의 항목은 구사 능력보다는 지식 측면의 항목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어휘의 형태와 의미뿐만 아니라, 통사, 화용, 단어 처리 등 어휘 사용에 필요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과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은 엄연히 다르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어휘 능력의 정의와 어휘 능력의 범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어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구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모두에게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그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기에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이 점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바라보는 어휘 능력의 범주를 강현화·원미진(2017), 김명광(2017), 민병곤 외(2020)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강현화·원미진(2017)에서 어휘 능력은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어휘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형식에 대한 지식, 의미에 대한 지식, 문법에 대한 지식, 용법에 대한 지식, 능동적인 사용을 위해 단어를 상기할 수 있는 능력, 구어나 문어 텍스트에 있어서 단어가 나타날 가능성에 관한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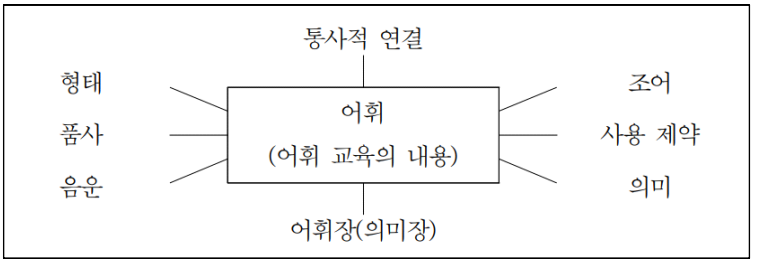
6가지로 나누어진다.

[표 2-4] 강현화·원미진(2017:46)의 어휘 능력 구성 요소

형식에 대한 지식	단어의 음과 단어의 철자
	단어의 형태와 조어법
의미에 대한 지식	단어의 의미
	단어의 개념 및 연상적 의미
문법에 대한 지식	단어의 문법적 기능
용법에 대한 지식	연어 관계에 대한 지식
	사용 제약
	빈도
능동적인 사용을 위해 단어를 상기할 수 있는 능력	
구어나 문어 텍스트에 있어서 단어가 나타날 가능성에 관한 지식	화용적·담화적 기능과 그 문체 수준에 대한 지식
	해당 단어가 가지는 문화적 함의까지 의미

위에 따라 어휘 능력은 단어의 음과 철자, 형태와 조어법 등의 형식, 단어의 개념과 연상적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 단어의 문법적 기능, 연어 관계와 사용 제약, 빈도 등의 용법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는 것까지도 어휘 능력에 포함된다. 단어를 상기할 수 있는 능력은 해당 단어가 사용되는 실제적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수행하는 실질적인 어휘 연습을 통해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김명광(2017)은 어휘력을 “어휘 지식의 수준”이라고 정의하며, 어휘 지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논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명광(2017)에서는 언어 처리 과정을 통해 어휘력의 범위를 정의하고자 하였는데, 어휘장(의미장)이 어휘 지식을 신장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함에 따라 연관된 단어의 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명광(2017)에서 정리한 어휘 지식의 범위, 어휘 교육의 내용은 어휘의 의미, 형태, 품사, 음운, 조어, 사용 제약과 통사적 연결, 어휘장(의미장)을 포함한다.



[그림 2-1] 김명광(2017:48)의 어휘 지식의 범위

민병곤 외(2020)에서는 어휘력과 어휘 능력을 같은 것으로 바라보고, 이는 “어휘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으로 형태와 의미, 용법에 관한 지식,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어휘 능력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말하거나 쓰면서 나타나는 표현력과 듣거나 읽으면서 나타나는 이해력의 정도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어휘 능력은 어휘에 대한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포함하며, 어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의 언어 기능을 통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병곤 외(2020)은 어휘 능력을 지식적 차원과 전략적 차원으로 나누었는데, 지식적 차원에는 형태, 의미, 통사, 화용, 기능 등이 포함되고 전략적 차원은 어휘 학습에 있어 상황을 판단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천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초인지적 전략과 어휘 사용에 있어 부족한 어휘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강현화·원미진(2017)의 어휘 능력 구성 요소의 구분을 따르되, 실제 의사소통에서의 어휘 사용을 위한 구분을 추가하여 크게 형식, 의미, 문법, 용법, 의사소통 적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의사소통 적용에는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통한 실제 어휘 구사 능력에 관한 요소가 포함된다. 또한 하위 요소는 듣기와 읽기 기능을 통한 어휘 이해와 말하기와 쓰기 기능을 통한 어휘 표현 항목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표 2-5] 한국어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

형식	단어의 음과 철자	단어가 어떻게 들리고 생겼는지 안다.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고 쓰는지 안다.
	단어의 구조	단어를 듣거나 읽고 해당 단어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안다.
		단어를 어떻게 생성하여 말하거나 쓸 수 있는지 안다.
의미	단어의 의미	단어를 듣거나 읽고 해당 단어의 의미를 안다.
		해당 단어를 말하거나 써서 어떤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지 안다.
	단어의 개념과 연상적 의미	단어를 듣거나 읽고 해당 단어의 개념과 연상적 의미를 안다.
		해당 단어를 말하거나 써서 어떤 개념과 연상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지 안다.
문법	단어의 문법적 기능	단어를 듣거나 읽고 해당 단어가 가지는 문법적 기능을 안다.
		해당 단어를 말하거나 쓸 때 고려해야 하는 문법적 기능을 안다.
용법	연어 관계	해당 단어를 어떤 단어와 함께 듣거나 읽게 되는지 안다.
		해당 단어를 어떤 단어와 함께 말하거나 써야 하는지 안다.
	사용 제약	해당 단어를 듣거나 읽고 사용 제약이 적절히 지켜졌는지 안다.
		해당 단어를 말하거나 쓰는 데에 어떤 사용 제약이 있는지 안다.
	빈도	얼마나 자주 해당 단어를 듣거나 읽게 될지 안다.
		얼마나 자주 해당 단어를 말하거나 쓸 수 있을지 안다.
의사소통 적용	단어 연상	단어를 듣거나 읽고 담화 상황 또는 맥락을 유추하거나 해당 단어와 연관된 단어를 떠올린다.
		담화 상황이나 맥락에 맞춰 말하거나 쓸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떠올린다.
	화용 및 담화적 기능	단어를 듣거나 읽고 해당 단어의 화용적·담화적 기능을 포함하여 이해한다.
		단어가 가지는 화용적·담화적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거나 써서 단어를 표현하다.
	문화적 함의	단어를 듣거나 읽을 때 해당 단어가 가지는 문화적 함의를 알고 이를 고려한다.
		단어를 말하거나 쓸 때 해당 단어가 가지는 문화적 함의를 알고 이를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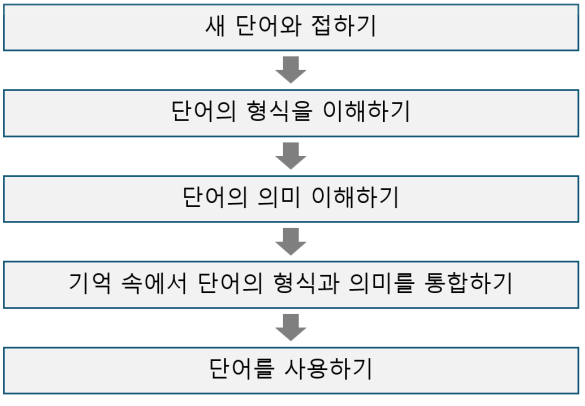
결국 한국어 어휘 교육을 통해 목표로 삼아야 하는 어휘 능력 향상은 어

휘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실제 의사소통에서 배운 어휘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실 수업에서는 인위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 속에서 학습자들이 어휘를 듣거나 읽어서 이해하고 말하거나 써서 표현하는 실질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어휘 연습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어휘 교수·학습의 단계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교실 안에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어휘 연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틀이 되어 줄 체계적인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와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어휘 교수·학습과 어휘 연습은 어떠한 단계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Brown·Payne(1994)은 학습자들이 새로운 어휘를 습득할 때 반드시 거치는 '새로운 어휘 학습의 과정 5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인용되기도 하며 어휘 습득에서의 주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림 2-2] Brown·Payne(1994)의 새로운 어휘 학습의 과정 5단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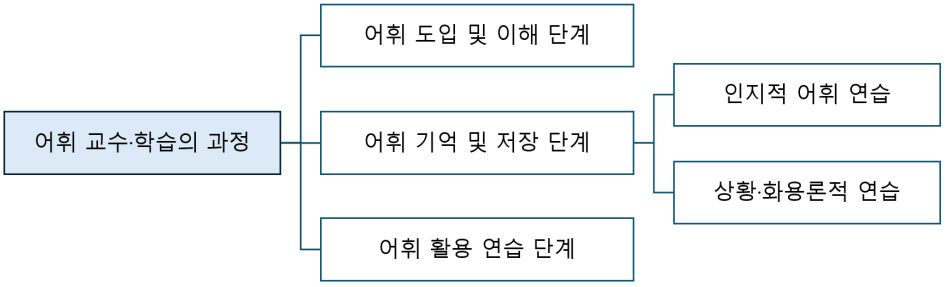
6) 한정일(1999:17) 재인용.

새로운 어휘 학습의 과정 1단계에서는 책, 잡지, 신문, TV나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새로운 어휘를 처음 만나게 된다. 2단계에서는 그 단어의 시각적 혹은 청각적 이미지를 이해하고 다음으로 3단계에서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단어의 의미를 모국어 화자나 목표어 화자에게 물어보거나, 사전 찾기, 문맥을 통해 추측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4단계는 단어의 형태와 의미의 결합을 강화시키는 단계로 플래시 카드 사용, 의미장 만들기, 연관어 연결 짓기, 문장 만들기 등의 전략을 통하여 기억을 강화함으로써 어휘 학습의 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다. 마지막 5단계는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이다. 이는 어휘에 대한 수용적 지식뿐만 아니라 표현적 지식의 생성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남상은, 2012:19-20).

이를 어휘 교육의 현장에 적용해 본다면 1단계는 어휘 제시, 2단계부터 4단계는 어휘 연습, 5단계는 교실 밖에서의 어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휘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 안에서의 어휘 연습은 2단계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4단계까지 최대한으로 도달하기 위한 연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현화·홍혜란(2009)에서는 연습활동의 단계를 '인지 단계-확인 및 강화 단계-사용 단계'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인지 단계는 어휘 형태와 의미를 인지하기 위한 활동이 제시되는 첫 번째 단계이고, 확인 및 강화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인지한 어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사용 단계는 학습한 어휘를 의사소통적 상황에서의 사용 능력으로 전이시키기 위한 단계이다(강현화·홍혜란, 2009:13).

신형욱(2010)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어휘 교수·학습의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어휘 도입 및 이해 단계, 두 번째는 어휘 기억 및 저장 단계, 세 번째는 어휘 활용 연습 단계이다. 또한 어휘 기억 및 저장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어휘 연습 방법을 인지적 어휘 연습과 상황·화용론적 연습으로 세분하였다.



[그림 2-3] 신형욱(2010)의 어휘 교수·학습의 과정

인지적 어휘 연습은 인지적 능력에 바탕을 둔 어휘 학습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준비 연습의 단계이다. 어휘의 계열, 통사 및 함축 의미적 관점에서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기억하고 저장시킨다. 상황·화용론적 연습은 의사소통 능력에 바탕을 둔 어휘 학습으로, 어휘의 의미와 기능적 사용 범주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습 단계이다. 상황·화용론적 연습에서는 학습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한 어휘로 말하거나 쓰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어휘 활용 연습 단계에서는 적합한 상황과 문맥을 통해 어휘를 연습한다. 주어진 의사소통 상황에 맞는 어휘를 학습자가 스스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은영(2015)은 초급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휘 중심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연습에 대해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어휘 형태와 의미 파악 연습, 두 번째는 문장에서 어휘 연습, 세 번째는 대화에서 어휘 사용이다. 먼저 어휘의 형태와 의미에 집중하여 연습한 뒤 문장 구조 속에서 어휘를 연습한다. 그리고 배운 어휘를 사용하여 실제 유의미한 대화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화를 바탕으로 어휘를 사용하는 연습을 한다.

[표 2-6] 선행 연구에서의 어휘 연습활동 단계 구분

강현화·홍혜란 (2009)	인지 단계 → 확인 및 강화 단계 → 사용 단계
신형욱(2010)	인지적 어휘 연습 → 상황·화용론적 연습 → 어휘 활용 연습

이은영 (2015)	어휘 형태와 의미 파악 연습 → 문장에서 어휘 연습 → 대화에서 어휘 사용
시사점	- 연습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 - 새로 배운 어휘의 형태와 의미에 초점을 둔 첫 번째 단계 - 문장 안에서 상황과 맥락에 맞춰 연습하는 두 번째 단계 - 의사소통 상황에서 스스로 표현하여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

연구자마다 정의하는 각 단계의 명칭에는 차이가 있으나 어휘 교수·학습에서 연습의 단계는 3단계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습하는 어휘의 형태와 의미에 초점을 둔 연습을 통해 새로 배우는 어휘를 인지하고 확인하기 위한 연습을 수행한다. 그다음에는 조금 더 확장하여 어휘를 연습하기 위해 문장 안에서 어휘를 연습하거나 표현의 제한을 덜 받는 상황에서 연습을 수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와 유사한 의사소통적 상황과 맥락의 대화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연습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학습자가 배운 어휘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스스로 표현하여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이루어진다.



[그림 2-4] 어휘 연습활동의 세 단계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어휘 사용을 위한 교실에서의 어휘 연습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 단계인 '인지 및 확인 단계'는 새로 배운 어휘의 의미와 형태를 인지하고 확인하는 단어 차원의 연습 단계이다. 두 번째 '맥락화 단계'에서는 여러 상황과 맥락에 따른 적절한 어휘를 떠올려서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한 단계로, 어휘의 다양한 사용 맥락과 용법 등을 익혀 장기 기억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문장 차원에서의 연습 단계이다. 마지막 '사용 단계'는 학습한 어휘를 실제 의사소통

적 상황과 맥락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발화를 산출하여 표현해 보는 담화 또는 단락 차원에서의 연습 단계이다.

2.3 어휘 활동의 유형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는 어휘 활동을 분석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여러 연구에서 어휘 활동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박건숙(2006)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편찬된 한국어 교재를 외국인 대상 교재와 재외국민 대상 교재로 나누어 분석하여 학습활동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어휘 학습활동은 어휘 자체의 의미나 결합 방식, 의미 관계에 대한 학습활동과 문장 속에서 단어의 의미 혹은 기능에 관한 학습활동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2-7] 박건숙(2006:36-38)의 어휘 학습활동 유형

어휘 학습활동	단어 학습	“그림 또는 사진과 어휘를 제시하여 어휘를 학습하는 활동”
	단어 의미 기술	“주어진 단어의 뜻을 기술하는 활동”
	단어 의미 관계	“유의어, 반의어, 관련어 등을 기술하는 활동”
	단어 결합 관계	“일정한 결합 형태의 단어를 찾아 기술하는 활동”
어휘의 의미 기능에 관한 학습활동	구문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기	“보기에 제시된 단어를 빈칸에 채워 넣는 활동”
	구문 내의 특정 어휘를 반복적으로 대치하기	“주어진 어휘 항목을 구문 내에서 교체하는 활동”
	문장 만들기 (혹은 짧은 글짓기)	“주어진 어휘를 가지고 문장이 되도록 연결하거나 짧은 글을 짓는 등의 활동”

이해영(2006)은 의사소통적인 한국어 교재의 개발을 위해 기존 교재의 어휘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 유형을 제안하였는데 교재에서 제시해야 하는 어휘 학습활동을 어휘 초점 활동과 4가지 언어 기술과의 통합 활동으로 나누었다. 어휘 초점 활동은 어휘 항목의 학습에 집중하는 활동으로

그 유형에는 찾아내기, 선택하기, 연결하기, 분류하기, 순서 매기기, 관련 어휘 모으기, 빈칸 채우기, 각종 게임이 있다. 4가지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언어 기술과의 통합 활동의 유형은 산출 활동과 이해 확인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표 2-8] 이해영(2006:34-35)의 어휘 학습활동의 유형

어휘 초점 활동	
찾아내기	선택하기
연결하기	분류하기
순서 매기기	관련 어휘 모으기
빈칸 채우기	각종 게임

4가지 언어 기술과의 통합 활동
산출 활동
이해 확인 활동

‘찾아내기’는 학습자가 텍스트나 단어 상자, 글자들 속에 숨겨진 단어를 찾아내어 쓰거나 표시하는 활동이다. ‘선택하기’는 학습자가 어휘 목록에서 지시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는 활동이다. 학습자가 자신이 선택한 어휘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은 개인화를 가능하게 하여 장기 기억을 돕고 습득을 자극한다. ‘연결하기’는 단어-단어 또는 그림-단어를 연결하는 활동으로 연어 관계 어휘 연결하기, 유의어나 반의어 연결하기, 카드 뒤집어서 짝 맞추기 게임 등이 속한다. ‘분류하기’는 학습자가 주어진 기준에 맞춰 어휘 목록을 하위 범주로 분류하는 활동이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원인과 결과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순서 매기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어를 배열하는 활동이다. 물건을 살 순서, 자주 일어나는 일의 발생 빈도, 일상생활 행위의 순서 등의 기준에 맞춰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하며 관련 어휘를 학습한다. ‘관련 어휘 모으기’는 주제 관련 어휘 학습에 유용한 어휘망 그리기 활동이다. ‘빈칸 채우기’는 주어진 표나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보기에서 골라 채우는 활동이다. ‘각종 게임’은 퍼즐, 빙고 게임, 스피드 게임 등의 게임을 통해 어휘 학습을 유도하는 활동이다.

‘산출 활동’은 짧은 글짓기나 다섯 단어를 이용해서 내용 구성하기, 관련 단어를 이용해서 주어진 상황 묘사하기 등, 어휘를 말하고 쓰며 산출하는 활동이다. ‘이해 확인 활동’은 배운 어휘를 듣거나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활동으로 어휘 학습보다는 이해 확인을 위한 활동이다.

김윤주(2022)에서는 KSL 교재에 구현되어 있는 어휘 학습활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해영(2006)의 어휘 학습활동 유형을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한 어휘 학습활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표 2-9] 김윤주(2022:192)의 어휘 학습활동 유형

학습활동 유형	개념
찾아내기	“단어 상자나 텍스트, 또는 여러 개의 글자들 속에 숨겨져 있는 어휘를 찾아내서 표시하거나 쓰는 활동”
선택하기	“주어진 지시에 따라 적합한 단어를 어휘 목록에서 선택하는 활동”
연결하기	“단어와 단어, 단어와 그림, 단어와 의미 설명, 단어와 상황 등을 연결하는 활동”
분류하기	“주어진 어휘 목록을 기준에 맞춰 하위 범주로 분류하는 활동”
순서매기기	“주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단어를 배열하는 것”
어휘망 만들기	“어휘망 그리기 활동으로, 주제 관련 어휘 학습에 유용”
빈칸 채우기	“주어진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주어진 ‘보기’에서 골라서 채워 넣는 활동”
각종 게임	“퍼즐이나 보드 게임, 빙고 게임 등 게임을 통해 어휘 학습을 유도하는 활동”
짧은 글짓기	“학습한 어휘들을 활용해 문장을 완성하거나 짧은 글을 만들어보도록 하는 활동”

류향화(2017)은 아동 대상 한국어 교재의 어휘 학습활동의 유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설명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어휘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휘 학습활동의 유형을 ‘어휘 자료 제시형’, ‘언어 기능 통합형’, ‘활동 강화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2-10] 류향화(2017:133)의 어휘 학습활동의 유형

어휘 자료 제시형	시각 자료 제시 활동
	신체 동작 제시 활동
	문맥 제시 활동

언어 기능 통합형	듣기를 중심으로 한 어휘 통합 활동
	말하기를 중심으로 한 어휘 통합 활동
	읽기를 중심으로 한 어휘 통합 활동
	쓰기를 중심으로 한 어휘 통합 활동
활동 강화형	노래 부르기
	만들기
	게임하기

어휘 자료 제시형에는 ‘시각 자료 제시 활동’, ‘신체 동작 제시 활동’, ‘문맥 제시 활동’이 있다. ‘시각 자료 제시 활동’은 실물이나 사진, 그림, 영상과 같은 시각 자료를 이용하여 어휘를 제시하는 활동으로 그림을 통해 맥락을 제시하여 아동들의 어휘 의미 추측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의 예는 그림 보고 어휘 카드 고르기, 그림 속 사물이 나타내는 어휘 찾아 쓰기, 그림에 제시된 어휘로 문장 만들기 등이 있다. ‘신체 동작 제시 활동’은 어휘를 몸짓이나 행동 등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활동이다. 이는 신체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 신체 부위 명사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부사, 위치 어휘, 의태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체 부위 또는 위치를 듣고 가리키기, 신체 동작을 보고 어휘 말하기, 행동을 표현하는 부사를 듣고 몸으로 나타내기, 몸으로 나타내는 동작이나 표현을 연결하여 이야기 만들기 등의 예시가 있다. ‘문맥 제시 활동’은 학습자가 글 전체를 보고 학습하고자 하는 어휘가 다른 어휘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며 어휘의 의미를 알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는 어휘의 의미와 함께 어휘의 쓰임을 익히게 한다. 예시에는 이야기를 듣고 학습한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기, 이야기 속에 제시된 어휘를 듣고 알맞은 그림 고르기, 이야기 속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 말하기 등이 있다.

언어 기능 통합형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듣기를 중심으로 한 어휘 통합 활동’과 ‘읽기를 중심으로 한 어휘 통합 활동’은 주어진 자료를 듣거나 읽은 후 다른 기능을 통해 어휘를 사용하게 한다. ‘듣기를 중심으로 한 어휘 통합 활동’의 예로는 어휘를 듣고 어휘 빙고놀이 하기, 설명을 듣고 어휘 맞추기, 이야기를 듣고 어휘를 포함하여 내용 말하기, 짧은 대화를 듣고 들은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 쓰기 등이 있다. ‘읽기를 중심으로 한 어휘 통합 활동의 예로는 광고지를 읽고 광고지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안내장을 읽고 중요 어휘를 포함하여 요약하기 등이 있다. ‘말하기를 중심으로 한 어휘 통합 활동’과 ‘쓰기를 중심으로 한 어휘 통합 활동’은 듣고 읽고 써서 어휘 학습을 하되, 그 결과는 말하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활동이다. ‘말하기를 중심으로 한 어휘 통합 활동’의 예로는 이야기를 듣고 느낌을 말하기, 정보를 듣고 들은 정보를 친구에게 말하기, 글을 읽고 요약하여 말하기 등이 있다. ‘쓰기를 중심으로 한 어휘 통합 활동’의 예로는 짧은 이야기를 읽고 목표 어휘를 포함한 문장을 쓰기, 우리 가족이나 우리 반 친구에 대한 소개를 글로 쓰고 이를 발표하기, 어휘를 듣고 철자 쓰기 시합 등이 있다.

활동 강조형은 흥미를 끌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어휘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활동 강조형에는 ‘노래 부르기’, ‘만들기’, ‘게임하기’가 있다. ‘노래 부르기’는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주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접하게 하는 노래를 통해 반복되어 나오는 어휘나 문장을 익히게 한다. ‘노래 부르기’의 예로는 노래 부르기 이외에도 가사 바꿔 부르기, 노랫말의 인물이나 이야기에 따라 동작 만들기, 노랫말에 틀린 어휘를 넣어 주고 노래를 들으면서 틀린 부분 고치기 등이 있다. ‘만들기’는 나만의 어휘 책 만들기, 그림 글자 카드 만들기, 글자 카드로 합성어 만들기 등의 학습활동으로 만들기를 통해 어휘를 학습함으로써 아동 학습자의 흥미와 집중력을 유발하는 활동이다. ‘게임하기’는 어휘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휘를 학습하게 하는 활동이다. 게임은 아동 학습자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며 언어 사용을 촉진하여 반복 어휘 학습을 지루하지 않게 한다. ‘게임하기’의 예로는 스피드 퀴즈 게임, 추측하기 게임, 땅따먹기 게임, 빙고 게임, 어휘 철자 맞추기, 네/아니오 게임, 기억력 게임, 낱말 퍼즐, 제시된 어휘 보고 연상되는 어휘 말하기 게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어휘 연습활동의 유형을 마련하였다. 연습활동의 유형에는 선택하기, 연결하기, 분류하기, 바꿔/고쳐쓰기, 빈칸 채우기, 순서 매기기, 문장 만들기, 구어 산출하기, 문어 산출하기가 있다.

[표 2-11] 어휘 연습활동의 유형

연습활동 유형	개념
선택하기	주어진 지시에 따라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는 활동
연결하기	알맞은 단어-단어, 단어-그림, 단어-설명, 단어-상황을 연결하는 활동
분류하기	주어진 기준에 맞춰 어휘를 분류하는 활동
바꿔/고쳐쓰기	주어진 지시에 따라 다른 단어로 바꿔쓰거나 올바르게 고쳐 쓰는 활동
빈칸 채우기	주어진 문장, 대화, 짧은 글의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채워 넣는 활동
순서 매기기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단어, 그림이나 사진을 배열하는 활동
문장 만들기	주어진 어휘나 조건에 따라 문장을 만드는 활동
구어 산출하기	학습한 어휘를 사용해 주어진 주제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대화하는 구어 산출 활동
문어 산출하기	학습한 어휘를 사용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짧은 글을 써 보는 문어 산출 활동

선택하기는 주어진 지시에 따라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는 활동이다. 연결하기는 알맞은 단어-단어, 단어-그림, 단어-설명, 단어-상황을 연결하는 활동이다. 분류하기는 주어진 기준에 맞춰 어휘를 분류하는 활동이다. 바꿔/고쳐쓰기는 주어진 지시에 따라 다른 단어로 바꿔쓰거나 올바르게 고쳐 쓰는 활동이다. 빈칸 채우기는 주어진 문장, 대화, 짧은 글의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채워 넣는 활동이다. 순서 매기기는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단어, 그림이나 사진을 배열하는 활동이다. 문장 만들기는 주어진 어휘나 조건에 따라 문장을 만드는 활동이다. 산출하기는 구어와 문어 산출을 구분하였다. 구어 산출하기는 학습한 어휘를 사용해 주어진 주제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대화하는 구어 산출 활동이고, 문어 산출하기는 짧은 글을 써 보는 문어 산출 활동이다.

Ⅲ. 한국어 교재 어휘 연습활동 분석

3.1 분석 대상 및 기준

본 연구에서는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실 수업에서의 어휘 연습활동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 한국어 중급 교재에 나타난 어휘 연습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자체 출판한 통합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통계서비스 KESS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교/학과별 데이터셋[1]의 '2025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자료와 이보라미 외(2020)[2]의 교재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중급 통합교재 4종을 선정하였다.

1) 교재 선정 기준
   ①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 중인 자체 교재일 것
   ② 소속 어학 연구생의 규모가 클 것
   ③ 해당 교재의 사용기관 수가 두 곳 이상일 것
   ④ 최근 10년 이내에 출판된 교재일 것
   ⑤ 개정판이 출판되었을 경우 개정판을 선정할 것
   ⑥ 본 교재는 급별 2권으로 구성된 통합교재일 것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휘 연습활동의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어학 연수생의 규모가 크고 여러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 중인 자체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교적 최근 출판된 교재를 살펴보기 위해 10년 이내에 출판된 교재를 선정하였으며 개정판이 출판되었을 경우 개정판을 선정하여 가장 최근의 교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교재가 가지는 지면의 제약 측면을 고려해야

1) https://kess.kedi.re.kr/contents/dataset?itemCode=04&menuId=m_02_04_03_02&tabId=m2
2) 이보라미 외. (2020). 『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급별 2권으로 구성된 통합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교재에 따라 급별 1~2권으로 제작된 워크북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함께 살펴보았다.

[표 3-1]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

저자	선정 교재		출판 시기
	본 교재	워크북	
A대학교 한국어센터	A 교재 3급	-	2020. 09.
	A 교재 4급	-	2021. 06.
B대학교 국제교육원	B 교재 3급	B 교재 3급 워크북	2019. 04.
	B 교재 4급	B 교재 4급 워크북	2021. 05.
C대학교 한국어교육원	C 교재 3급	C 교재 3급 워크북	2023. 05.
	C 교재 4급	C 교재 4급 워크북	2023. 06.
D대학교 언어교육원	D 교재 3급	D 교재 3급 워크북	2018. 06.
	D 교재 4급	D 교재 4급 워크북	2018. 06.

위 기준에 따라 선정한 교재의 단원 구성과 어휘 제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A 교재의 어휘 영역은 어휘의 도입, 제시,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 제시는 어휘 주제로 묶어서 단어만 제시하거나 단어와 그림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분석 대상 교재 중 유일하게 어휘 영역마다 대화문 형식의 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휘 주제로 묶이지 않은 개별 단어는 새 단어로 나타낸다. 교재 부록에서 단원별과 가나다순으로 어휘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 A 교재는 다른 교재들과 다르게 워크북이 존재하지 않는다.

B 교재의 어휘 영역은 소단원마다 첫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다. 학습 목표 어휘 제시와 어휘 활동이 연결되어 있으며 단어만 제시하는 경우, 단어+그림, 단어+의미를 제시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교재 부록에는 단원별로 정리된 어휘 목록과 가나다순으로 정리된 어휘 색인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B 교재는 급별로 1권의 워크북이 존재하는데 3급 워크북은 소단원별로 나누어 2~3개의 연습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4급 워크북은 단원별로 5~6개의 연습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C 교재는 소단원 첫 페이지에 어휘 영역이 제시되어 있다. 어휘 주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소단원 주제와 관련된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지 하단에 학습 목표 어휘와 영어 번역이 제시되며 연습활동 안에서 단어만, 단어+그림 형태로 단어가 제시된다. 교재 부록의 어휘 색인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번역이 함께 제시된다. C 교재는 급별 2권의 워크북이 존재한다. 3급과 4급 워크북 모두 소단원별로 2~4개의 연습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D 교재는 단원 첫 부분 1~2페이지에 어휘 영역이 제시되어 있다. 페이지 상단에 학습 목표 어휘가 단어로만 제시된다. 교재 부록 어휘 색인에서는 단원별로 어휘를 구분하여 한국어로만 학습 목표 어휘를 제시하였다. D 교재는 급별로 1권의 워크북이 존재하며 3급의 한 단원에서 2개의 연습활동이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단원별 1개의 연습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의 교재 분석 기준을 세우기에 앞서 우선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교재의 어휘 활동 분석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해영(2006)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어휘 학습 영역이 교수·학습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적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교재의 어휘 학습 영역 점검 목록을 제시하였다. 점검 목록은 8개의 항목이며 크게 어휘 선택과 학습 방식으로 나뉜다. 이 중 학습 방식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2] 이해영(2006:28-29) 교재의 어휘 학습 방식 점검 목록

구분	점검 항목
학습 방식	새로 나온 어휘는 후에 충분히 반복하여 재활용되는가?
	어휘 학습을 위한 다양한 연습 방법이 제공되는가? 단순 제시인가?
	연습 활동이 어휘의 구조나 어휘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가?
	어휘 학습이 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학습 방식에 관한 점검 항목은 총 4개로 첫째, 새로 나온 어휘가 후에 충분히 반복하여 재활용되는지 점검한다. 교재의 어휘 학습활동은 처음 학습한 어휘를 반복하고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어휘 학습을 위한 연습 방법이 다양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연습 방법은 파생어나

의미 관계를 활용하는 등, 문법 학습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어휘 학습에 목적 둔 다양한 연습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연습 활동이 어휘의 구조나 어휘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넷째, 어휘 학습이 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한다.

박수현(2008)에서는 학습자의 효율적인 어휘 학습 전략 체득과 사용 어휘로의 어휘 습득을 위한 어휘 교재 개발을 목적으로 외적 구성과 내적 구성으로 나누어 한국어 어휘 교재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내적 구성은 특히 학습 전력과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마련된 분석 기준이다. 내적 구성은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활동으로 다시 나뉜다.

[표 3-3] 박수현(2008:23) 어휘 교재의 학습활동 분석 기준

구분	분석 기준
학습 활동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는가?
	언어기능(말하기·듣기·쓰기·읽기)의 통합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가?
	어휘 학습활동들이 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 계발에 도움이 되는가?
	학습한 내용의 적절한 평가와 심화 보충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 중 학습활동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활동 분석 기준 첫째는 제시된 학습활동 형태의 다양성, 둘째는 언어 기능(말하기·듣기·쓰기·읽기)의 통합 활동 포함, 셋째는 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 계발 가능성, 넷째는 적절한 평가와 심화 보충 활동 포함이다.

오은화(2019)에서는 자가 학습용 어휘 교재 개발을 위해 크게 교재 구성, 학습 외적 구성, 학습 내적 구성으로 구분하여 어휘 교재 분석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학습 내적 구성은 내용 구성, 어휘, 과제, 자가 학습 활용도, 흥미로 다시 나뉜다. 이 중 과제 분석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관련어 연계 활동을 통한 어휘 의미 이해 및 어휘 확장 가능성, 두 번째는 실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한 실생활에서의 어휘 사용능력 연계성, 세 번째는 실제 사용 상황을 포함한 과제 제시 여부, 네 번째는 다양한 유형의 과제 제공 여부, 다섯 번째는 타 언어 기능과의 통합적 활동 가능성이다.

[표 3-4] 오은화(2019:32) 어휘 교재의 과제 분석 기준

구분	분석 기준
과제	관련어 연계 활동을 통한 어휘 의미 이해 및 이해 확장 가능성
	실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한 실생활에서의 어휘 사용능력 연계성
	실제 사용 상황을 포함한 과제 제시 여부
	다양한 유형의 과제 제공 여부
	타 언어기능과의 통합적 활동 가능성

다음으로 강현화·홍혜란(2009)에서 제시한 어휘 워크북 개발 모형을 살펴보겠다. 자가 학습과 숙달도별 학습이 가능한 어휘 학습 교재를 위해 어휘 학습 이론과 국외 교재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0가지의 어휘 학습용 워크북 개발 원리를 제시하였다. 강현화·홍혜란(2009)의 어휘 학습용 워크북 개발 원리는 어휘 연습활동 구성 시 고려해야 하는 점으로써도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교재 분석 목적과도 방향성이 같다고 보아 교재 분석 기준 마련을 위해 함께 살펴보았다.

[표 3-5] 강현화·홍혜란(2009:11-16) 어휘 학습용 워크북 개발 원리

	어휘 학습용 워크북 개발 원리
1	학습자의 어휘 숙달도 수준에 따른 단계별 어휘 학습을 제시한다.
2	체계적인 반복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선형으로 제시한다.
3	어휘 습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습 활동을 단계별로 배열, 제시한다.
4	관련어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어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어휘의 형태와 의미 외에 연어 관계를 비롯한 어휘의 용법을 포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6	조어법을 활용하여 생산적인 어휘 사용 및 어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7	타 언어기능과 통합적 활동이 되도록 한다.
8	실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생활에서의 어휘 사용 능력을 높인다.
9	다양한 유형의 연습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10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을 고려한 연습 활동을 제시한다.

첫째, 학습자의 어휘 숙달도 수준에 따른 단계별 어휘 학습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어휘 숙달도는 학습 목표 어휘를 처음 접하는 기초 단계와 어휘의 기본 의미는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용법이나 사용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필요로 하는 심화 단계를 말한다. 둘째, 체계적인 반복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선형으로 제시한다. 실제적인 사용 능력으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반복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어휘 습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습 활동을 단계별로 배열, 제시한다. 강현화·홍혜란(2009)에서는 단원별 연습 활동을 인지 단계, 확인 및 강화 단계, 사용 단계로 제시하였다. 넷째, 관련어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어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장기 기억으로의 전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으로, 어휘장과 반의 관계, 유의 관계 등의 의미 관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어휘의 형태와 의미 외에 연어 관계를 비롯한 어휘의 용법을 포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연어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다른 패턴을 예측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여섯째, 조어법을 활용하여 생산적인 어휘 사용 및 어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파생 접사나 합성어의 어근을 활용한 어휘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어의 조어 체계를 이해하고 생산적인 어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일곱째, 타 언어기능과 통합적 활동이 되도록 한다. 이는 특정한 의사소통적 맥락에서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기 위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과 통합한 의사소통적 과제 활동을 말한다. 여덟째, 실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생활에서의 어휘 사용 능력을 높인다.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제성 있는 자료를 연습 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실제 사용 맥락 속에서 어휘의 용법을 익히고 의사소통적 상황에서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아홉째, 다양한 유형의 연습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체계적인 반복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어휘를 학습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열째,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을 고려한 연습 활동을 제시한다. 학습 전략을 사용한 연습 활동은 보다 효율적일 뿐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전략 사용 방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분석 기준과 개발 원리는 통합교재, 어휘 교재, 어휘 학습용 워크북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중급 통합교재의 연습활동이 교실에서 학습한 어휘를 실제 사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교실 안에서의 어휘 연습활동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휘 연습활동을 구성하여 학습자의 넓고 깊은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해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기준 및 개발 원리를 바탕으로 중급 통합교재 어휘 연습활동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3-6] 어휘 연습활동 분석 기준

분석 기준	내용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연습활동이 단계별로 제시되었는가?
	연습활동이 단계 순서대로 제시되었는가?
	제시된 단계별 연습활동이 타당성을 가지는가?
연습활동 유형의 다양성	어떤 유형의 연습활동이 제시되었는가?
	어휘 연습활동 유형이 단원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는가?
학습 목표 어휘의 반복 활용 여부	학습자가 연습활동을 통해 새로 배운 어휘를 반복해서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연습활동이 구성되었는가?
어휘 배경지식을 활용한 연계 학습 유도	학습자가 이미 배운 어휘를 활용한 연습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어휘 의미 이해 및 이해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
언어기능과의 통합성	연습활동이 듣기와 읽기, 말하기와 쓰기 기능과 통합하여 구성되었는가?
실제성 있는 자료 활용	어휘를 사용하는 담화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성 있는 자료나 예문 등을 활용하였는가?

첫 번째는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이다. 앞서 이론적 배경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 맞춰 어휘 연습 단계를 ‘인지 및 확인 단계’, ‘맥락화 단계’, ‘사용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급 통합 교재의 어휘 연습활동이 단계별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는지, 단원별 연습활동이 단계 순서대로 제시되었는지, 제시된 각 단계별 연습활동이 타당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는 연습활동 유형의 다양성이다. 교재에 어떤 유형의 어휘 연습활동이 제시되었

는지 살펴본다. 또한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어휘 학습과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위해 단원별로 바라봤을 때 어휘 연습활동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세 번째는 학습 목표 어휘의 반복 활용 여부이다. 학습자가 연습활동을 통해 새로 배운 어휘를 반복해서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연습활동이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본다. 네 번째는 어휘 확장 유도 여부이다. 학습자가 이전에 배워 알고 있는 어휘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어휘 의미 이해 및 이해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가 살펴본다. 다섯 번째는 언어기능과의 통합성이다. 제시된 어휘 연습활동이 타 듣기·읽기·말하기·쓰기의 언어기능과 통합적으로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여섯 번째는 실제성 있는 자료 및 예문 활용이다. 학습 목표 어휘가 실제 사용되는 담화 상황이나 맥락을 학습자가 이해하고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활동에서 그림이나 사진, e-mail, 안내문 등의 실제성 있는 자료나 예문 등이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이렇게 마련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교재를 살펴, 교재에 나타난 연습활동이 학습자들이 학습한 어휘를 교실 수업에서 충분히 연습하여 교실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3.2 교재 분석 내용

3.2.1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첫 번째로 한국어 교재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를 ‘인지 및 확인 단계’, ‘맥락화 단계’, ‘사용 단계’로 구분하였다. 인지 및 확인 단계는 새로운 어휘를 처음 접하고 어휘의 의미와 형태를 인지하는 단계이다. 학습 목표 어휘 자체의 의미와 형태 학습에 중점을 둔 단어 차원에서의 연습을 수행한다. 맥락화 단계는 어휘의 사용 맥락과 용법을 익히고 관련어와의 의미 관계를 통해 의미 학습을 넓혀가는 단계이다. 배운 어휘가 장

기 기억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확장된 의미와 용법 연습을 문장 차원에서 수행한다. 사용 단계는 학습한 어휘를 실제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이해하고 표현해 보는 단계이다. 발화의 제약이 없는 조건에서 학습자가 배운 어휘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표현하게 하는 연습활동을 말한다.

분석 대상인 4종의 한국어 교재의 어휘 연습활동이 단계별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교재에 나타난 연습활동이 단계 순서대로 제시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단계별 구성을 살펴볼 때는 본 교재와 워크북에 단원별로 제시된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인지 및 확인 단계, 맥락화 단계, 사용 단계의 연습활동이 모두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3] 그리고 교재에 나타난 연습활동이 단계 순서대로 제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말하기 중점 교재인 A 교재의 어휘 연습활동은 인지 및 확인 단계, 맥락화 단계, 사용 단계의 단계로 구분되어 구성되었고, 어휘 주제마다 1개 또는 2개의 연습활동이 제시되어 있었다. 제시된 2개일 때는 대부분 맥락화 단계와 사용 단계, 인지 및 확인 단계와 사용 단계 구성으로 제시하였고 대부분 순차적인 단계로 연습활동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연습활동은 주어진 대화문 형식의 보기에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하는 인지 및 확인 단계와 맥락화 단계의 연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학습자는 단순 교체 말하기 연습을 하거나 문장을 변형하여 말하기 연습을 한다. 두 번째 연습활동은 사용 단계의 말하기 연습활동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자는 첫 번째 연습활동에서 단어의 의미와 형태를 익히며 배운 어휘를 사용해 문장을 만들고 표현하는 연습을 한 뒤, 두 번째 연습활동에서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A 교재의 인지 및 확인 단계 연습활동은 주어진 단어나 삽입구, 그림이나 사진, 표나 그래프를 보고 보기와 같이 대화하는 활동이었다. 보기 대화문에 사용된 단어를 주어진 단어로 교체하여 이야기하는 활동의 비율이 크게 나타났는데, 학습자가 배운 어휘를 실제 사용하기 전 학습 목표 어휘를 소리 내어 말하며 사용 단계 전 기초를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시된 시각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활동을 통해 배운 단어의 의미와

3) 각 연습활동의 단계 분석 시, 한 연습활동 안에서 두 단계가 혼합된 경우가 나타났다. 이 때는 둘 중 어느 한 단계로 판단하지 않고 두 단계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형태를 확인하게 된다. 맥락화 단계의 연습활동에서도 인지 및 확인 단계에서와 같이 주어진 단어나 삽입구,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보기와 같이 대화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학습자가 발화하는 문장 산출에서 차이가 있다. 맥락화 단계의 연습활동은 단순 교체가 아닌 주어진 자료에 따라 학습자가 문장을 스스로 변형해야 하는 활동이다. 또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든 뒤 보기와 같이 대화하는 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문장 안에서의 어휘 사용법과 어휘의 위치 등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사용 단계의 연습활동은 주어진 학습 목표 어휘와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이었다. 학습자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활동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A 교재의 어휘 연습활동은 어휘의 형태와 사용 학습을 중점적으로 구성되어 어휘 의미 확장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표 3-7] A 교재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단원	3급				4급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4]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
1과	O	O	O	순차적	O	-	O	순차적
2과	O	O	O	순차적	O	-	O	순차적
3과	O	O	O	순차적	O	O	O	순차적
4과	-	O	O	순차적	-	O	O	순차적
5과	O	O	O	순차적	-	O	O	순차적
6과	O	O	O	순차적	O	-	O	순차적
7과	O	O	O	순차적	O	-	O	순차적
8과	O	O	O	순차적	O	O	O	순차적
9과	O	O	O	순차적	O	O	O	순차적
10과	O	-	O	순차적	O	O	O	순차적

4) 단계적 순서를 살펴볼 때는 교재에서 어휘 주제별 또는 소단원별, 단원별로 제시된 연습활동이 단계 순서대로 구성된 경우(순차적), 같은 단계로만 구성된 경우(동일), 단계 순서가 거꾸로 제시된 경우(역행), 단계의 순서가 섞여 있는 경우(혼재), 한 개의 연습활동만이 제시된 경우(동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B 교재의 본 교재는 세 단계의 연습활동이 구분되어 제시되었으며 그 비율이 고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워크북은 사용 단계의 연습활동 없이 인지 및 확인 단계와 맥락화 단계의 연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맥락화 단계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사용 단계 연습활동은 약 10% 정도로 나타났다. 혼합 단계의 연습활동도 있었는데, 그림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쓴 후 주어진 질문에 대답하는 것과 같이 두 개의 연습활동을 하나로 제시한 형태였다. B 교재는 소단원별로 구분하여 연습활동의 단계적 순서를 살펴보았다. 먼저 본 교재는 3급과 4급을 합친 전체 소단원 48개 중 18개 소단원이 단계 순서대로 연습활동을 제시하였다. 같은 단계의 연습활동으로 구성된 소단원은 20개로, 단계 순서대로 제시된 소단원의 수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순서가 역행하거나 혼재된 소단원은 10개가 있었다. 워크북은 3급과 4급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3급 워크북은 24개의 소단원 중 11개의 소단원이 단계 순서대로 연습활동이 구성되어 있었고 같은 단계로 구성된 소단원은 4개, 순서 역행 또는 혼재하는 소단원은 9개가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계 순서대로 제시된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B 교재의 인지 및 확인 단계 연습활동은 어울리는 어휘-어휘, 어휘-그림, 어휘-의미 연결하기, 그림에 맞는 어휘 쓰기, 질문에 대답하기 등의 활동이 있었다. 연결하기와 그림에 맞는 어휘 쓰기 활동으로 학습자는 배운 어휘의 의미를 반복해서 인지하고 확인한다.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휘의 의미를 묻고 이에 맞는 어휘를 대답하는 활동으로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맥락화 단계의 연습활동은 빈칸 쓰기, 문장 만들기 등의 활동이 있었다. 제시된 그림에 맞는 문장을 만들거나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어휘의 의미와 더불어 문장에서의 어휘 사용법을 익히게 된다. 빈칸 쓰기는 문장 삽입 빈칸 쓰기 활동이었다. 문장 삽입 빈칸 쓰기 활동은 어휘 연어 관계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하여 어휘 확장을 유발한다. 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순서 매기기 연습활동도 하나씩 나타났는데 B 교재 3급 제8과 '진학 준비' 소단원에서 대학 진학 시 요구되는 제출 서류 어휘를 공부하고 이를 준비하고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활동이었다. 그리고 대학에 지원하

고 합격자 결과를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순서를 매기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의 진학 준비와 관련 지식 습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용 단계 연습활동은 대체적으로 말하기 활동으로 나타났다. 학습 목표 어휘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거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이었다.

[표 3-8] B 교재 3급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5)]

단원	본 교재				워크북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
1과	O	-	O	순차적/순차적	O	O	-	순차적/혼재
2과	O	-	O	역행/동일	O	O	-	혼재/순차적
3과	O	O	O	역행/동일	O	O	-	순차적/역행
4과	O	O	-	순차적/순차적	O	O	-	순차적/혼재
5과	-	-	O	동일/동일	O	O	-	순차적/순차적
6과	O	-	O	순차적/동일	O	O	-	순차적/순차적
7과	O	-	O	동일/동일	O	O	-	혼재/순차적
8과	O	O	O	역행/순차적	-	O	-	동일/동일
9과	O	-	O	동일/순차적	O	O	-	순차적/순차적
10과	O	O	O	동일/혼재	O	O	-	역행/역행
11과	O	O	-	순차적/동일	O	O	-	혼재/혼재
12과	O	-	-	동일/동일	O	O	-	혼재/역행

[표 3-9] B 교재 4급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6)]

단원	본 교재				워크북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
1과	O	O	O	혼재/역행	O	O	-	혼재
2과	O	O	O	순차적/역행	O	O	-	혼재
3과	O	O	O	역행/혼재	O	O	-	혼재

5) B 교재 3급 본 교재와 워크북의 경우 한 단원 내 두 개의 소단원별로 나누어 연습활동이 구성되어 있어 단계 순서 분석 시 둘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6) B 교재 4급 본 교재의 경우 한 단원 내 두 개의 소단원별로 나누어 연습활동이 구성되어 있어 단계 순서 분석 시 둘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4과	-	O	O	동일/순차적	O	O	-	혼재
5과	-	O	O	순차적/동일	O	O	-	혼재
6과	O	-	O	동일/동일	O	O	-	혼재
7과	O	O	-	순차적/역행	O	O	-	혼재
8과	O	O	O	순차적/순차적	O	O	-	혼재
9과	O	O	O	역행/순차적	O	O	-	혼재
10과	O	O	O	순차적/역행	O	O	-	혼재
11과	-	O	-	동일/동일	O	O	-	혼재
12과	O	O	O	순차적/순차적	O	O	-	혼재

C 교재의 본 교재 어휘 연습활동은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되었으나 전체 141개의 연습활동 중 사용 단계가 98개로 비중을 가장 크게 두고 있었고 맥락화 단계 연습활동의 개수는 9개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맥락화 단계 연습활동이 부족한 점을 워크북으로 보충하고 있었다. 워크북은 절반 이상이 맥락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C 교재 3급은 모든 어휘 연습활동이 주어진 질문에 답하거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하기 활동이었다. 이로 인해 사용 단계의 비중이 커졌다. 워크북을 포함한 C 교재의 연습활동 순서를 살펴보았는데, 3급과 4급의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C 교재 3급은 단계 순서대로 제시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4급은 순서가 역행하거나 혼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C 교재의 인지 및 확인 단계 연습활동에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기, 제시된 질문에 대답하거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설명에 맞는 어휘 고르기가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배운 어휘의 의미를 다시 인지하고 확인한다. 맥락화 단계 연습활동은 제시된 질문에 대답하기, 문장 삽입 빈칸 쓰기, 어울리는 어휘끼리 연결하거나 그룹 짓기 활동이 있었다. 학습 목표 어휘 간의 의미를 연관 지어 생각하는 활동은 학습자의 어휘 의미 확장과 장기 기억으로의 전이를 돕는다. 또한 연어 관계를 활용한 어휘 연습활동이 나타났다. 사용 단계 연습활동은 대부분 본인의 경험, 생각, 고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제시된 질문이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이었다. 학습 목표 어휘와 관련된 주제나 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는 배운 어휘를 사용해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표 3-10] C 교재 3급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7)]

단원	본 교재				워크북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
1과	–	–	O	동일/동일	–	O	O	순차적/순차적
2과	O	–	O	순차적/동일	–	O	–	동일/동일
3과	–	–	O	동일/동일	O	O	O	순차적/순차적
4과	O	–	O	순차적/단일	–	O	–	동일/동일
5과	O	–	O	순차적/단일	O	O	O	동일/순차적
6과	O	–	O	단일/역행	O	O	O	역행/순차적
7과	–	–	O	동일/동일	–	O	O	혼재/순차적
8과	O	–	O	혼재/동일	O	O	O	혼재/순차적
9과	O	–	O	순차적/역행	O	O	O	순차적/혼재
10과	O	–	O	동일/순차적	–	O	O	순차적/순차적
11과	–	–	O	동일/동일	–	O	O	순차적/혼재
12과	–	–	O	동일/동일	–	O	O	순차적/순차적
13과	O	–	O	순차적/순차적	–	O	O	순차적/순차적
14과	–	–	O	단일/동일	–	O	O	순차적/순차적
15과	–	–	O	단일/동일	O	O	O	혼재/혼재
16과	–	–	O	동일/단일	O	O	O	혼재/혼재
17과	O	–	O	역행/동일	–	O	O	순차적/순차적
18과	–	–	O	동일	–	O	–	동일

[표 3-11] C 교재 4급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8)]

단원	본 교재				워크북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
1과	–	–	O	동일/동일	O	O	O	동일/혼재
2과	O	–	O	역행/순차적	–	O	O	동일/순차적
3과	O	–	O	순차적/동일	–	O	O	순차적/동일
4과	O	–	O	순차적/역행	–	O	O	순차적/순차적
5과	O	–	O	순차적/역행	O	O	O	동일/순차적
6과	O	–	O	역행/순차적	O	O	O	역행/순차적

7) C 교재 3급 본 교재와 워크북의 경우 18과 한 단원만을 제외하고, 한 단원 내 두 개의 소단원별로 나누어 연습활동이 구성되어 있어 단계 순서 분석 시 둘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7과	O	-	O	역행/동일	O	O	O	혼재/혼재
8과	O	-	O	동일/역행	O	O	O	역행/순차적
9과	O	-	O	역행/동일	O	O	O	혼재/순차적
10과	-	-	O	동일/동일	O	O	O	혼재/혼재
11과	O	-	O	순차적/동일	O	O	O	순차적/역행
12과	O	O	O	단일/역행	O	O	O	순차적/혼재
13과	O	-	O	동일/역행	O	O	O	순차적/역행
14과	-	O	O	역행/동일	O	O	O	혼재/순차적
15과	O	-	O	동일/역행	-	O	O	순차적/순차적
16과	O	O	O	역행/순차적	-	O	-	동일/동일
17과	-	O	O	동일/역행	O	O	O	순차적/혼재
18과	-	-	O	동일/동일	-	O	O	순차적/순차적

D 교재의 어휘 연습활동은 본 교재와 워크북 모두 인지 및 확인 단계 또는 맥락화 단계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용 단계의 연습활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맥락화 단계 연습활동이 인지 및 확인 단계 연습활동보다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배운 어휘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D 교재의 본 교재는 단원별로 연습활동이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제시되었다. 제시된 연습활동의 단계 순서는 역행하거나 섞여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연습활동의 난이도가 단원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워크북의 연습활동은 빈칸 채우기 활동 하나로만 제시되어 있었다.

D 교재의 인지 및 확인 단계 연습활동에는 설명이나 그림에 맞는 어휘를 쓰거나 연결하기, 두 어휘 중 문장에 들어갈 어휘 고르기가 있었다. 설명이나 그림으로 어휘의 의미를 나타내고 이에 알맞은 어휘를 쓰거나 어휘끼리 연결하는 활동이 있었다. 또한 문장 안에 들어갈 어휘를 두 개 어휘 중에서 고르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배운 어휘의 의미와 형태를 재차 인지하고 확인하게 된다. 맥락화 단계의 연습활동에는 빈칸 쓰기, 상위어 또는 유의어 쓰기, 어휘 연결하기,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휘 쓰기, 잘못된 곳 찾아서 고치기, 어휘를 연결해서 문장 만들기 활동이 있었다. D

8) C 교재 4급 본 교재의 경우, 한 단원 내 두 개의 소단원별로 나누어 연습활동이 구성되어 있어 단계 순서 분석 시 둘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교재의 맥락화 단계 연습활동에서는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를 활용한 연습활동이 나타났다. 이러한 관련어를 활용한 연습활동으로 학습자는 의미 확장을 통해 배운 어휘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게 된다. 또한 연어 연결하기와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휘 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 목표 어휘의 연어 관계를 학습하며 어휘 사용법을 익히게 된다. D 교재에서는 사용 단계의 어휘 연습활동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D 교재 구성의 특성상 어휘와 문법 학습 내용을 간단한 연습활동과 함께 제시한 이후 어휘와 문법 학습 내용을 통합하여 목표 문형의 형태 결합 연습과 의미 확인 학습 및 사용을 위한 연습활동이 제시되었다.[9] 따라서 단원 초반 어휘 영역에서는 사용 단계를 제외한 연습활동이 제시된 것으로 보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워크북에 제시된 연습활동이 3급의 한 단원을 제외하고 모두 문장 빈칸 채우기 유형으로만 제시가 되었다는 점이다. 본 교재에서 어휘 학습만을 위한 사용 단계 연습활동이 미흡했던 점을 워크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표 3-12] D 교재 3급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단원	본 교재				워크북[10]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
1과	O	O	–	역행	–	O	–	동일
2과	–	O	–	동일	–	O	–	동일
3과	O	O	–	혼재	–	O	–	동일
4과	–	O	–	동일	–	O	–	동일
5과	O	O	–	혼재	–	O	–	동일
6과	O	O	–	혼재	–	O	–	동일
7과	–	O	–	동일	–	O	–	동일
8과	O	O	–	혼재	–	O	–	동일
9과	O	O	–	순차적	–	O	–	동일
10과	–	O	–	동일	–	O	–	동일
11과	O	O	–	혼재	–	O	–	동일

9) 어휘와 문법이 결합된 연습활동은 어휘 학습을 위한 연습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2과	–	O	–	동일	–	O	–	동일
13과	–	O	–	동일	–	O	–	동일
14과	O	O	–	역행	–	O	–	동일
15과	–	O	–	동일	–	O	–	동일
16과	–	O	–	동일	–	O	–	동일
17과	–	O	–	동일	–	O	–	동일
18과	–	O	–	동일	–	O	–	동일
19과	O	O	–	역행	–	O	–	동일
20과	O	O	–	혼재	–	O	–	동일

[표 3-13] D 교재 4급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단원	본 교재				워크북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	인지/확인	맥락화	사용	단계 순서
1과	O	O	–	역행	–	O	–	동일
2과	O	O	–	혼재	–	O	–	동일
3과	O	O	–	혼재	–	O	–	동일
4과	–	O	–	동일	–	O	–	동일
5과	–	O	–	동일	–	O	–	동일
6과	O	O	–	혼재	–	O	–	동일
7과	–	O	–	동일	–	O	–	동일
8과	O	O	–	순차적	–	O	–	동일
9과	–	O	–	동일	–	O	–	동일
10과	O	O	–	역행	–	O	–	동일
11과	–	O	–	동일	–	O	–	동일
12과	O	O	–	순차적	–	O	–	동일
13과	O	O	–	순차적	–	O	–	동일
14과	O	O	–	역행	–	O	–	동일
15과	O	O	–	역행	–	O	–	동일
16과	O	O	–	순차적	–	O	–	동일
17과	O	O	–	순차적	–	O	–	동일
18과	O	O	–	순차적	–	O	–	동일

10) D 교재 3급과 4급의 워크북 연습활동은 단원마다 해당 단원에서 배운 어휘를 모두 다루는 빈칸 채우기 활동이 제시되었다. 이 경우는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따르면 한 개의 연습활동이 제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D 교재 워크북은 모든 단원에서 맥락화 단계의 연습활동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19과	O	O	-	혼재	-	O	-	동일
20과	O	O	-	혼재	-	O	-	동일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분석 대상 교재 모두 인지 및 확인 단계 연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인지 및 확인 단계의 연습활동은 어휘 연습의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단계로서 모든 교재에서 인지 및 확인 단계의 연습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어휘 학습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구성하였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배운 어휘를 교실 밖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맥락화 단계와 사용 단계의 연습활동도 인지 및 확인 단계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워크북의 어휘 연습활동은 맥락화 단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교재와 별도의 워크북이 존재하는 3종의 교재 워크북 모두 맥락화 단계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교재에서 부족했던 맥락화 단계의 연습을 워크북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셋째, 사용 단계의 연습활동은 말하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 단계의 연습활동은 본인의 경험, 생각, 계획, 고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주어진 질문에 대답하거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기 등 모두 말하기 활동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쓰기 활동을 통한 사용 단계 연습활동은 제시되지 않아 문어 표현 학습은 다소 결여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재의 어휘 연습활동은 단계 순서와 관계없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A 교재를 제외한 3종의 교재는 연습활동이 제시된 순서가 대부분 연습활동 단계의 순서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학습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어휘 지식을 체계적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쉬운 단계의 연습활동부터 점점 어려운 단계의 연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휘 연습의 단계 순서에 따른 연습활동 구성이 필요하다.

3.2.2 연습활동 유형의 다양성

강현화·홍혜란(2009)에서는 학습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면서 체계적인 방식에 의해 유형화된 연습 문제를 구성해야 한

다고 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마련한 연습활동의 유형을 바탕으로 한국어 통합교재에 어떤 유형의 어휘 연습활동이 제시되었는지 살펴보고, 단원별로 어휘 연습활동 유형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 연습활동을 선택하기, 연결하기, 분류하기, 바꿔/고쳐쓰기, 빈칸 채우기, 순서 매기기, 문장 만들기, 구어 산출하기, 문어 산출하기의 9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교재별로 살펴보면, A 교재는 3개의 유형, D 교재는 6개의 유형, B 교재는 7개의 유형, C 교재는 8개의 유형이 제시되었다. C 교재에 제시된 어휘 연습활동 유형이 가장 다양했으며 A 교재의 연습활동 유형이 가장 적었다. 유형별 합계를 보면, 연결하기와 문장 만들기 유형은 4종의 한국어 교재 모두에서 나타났다. 3종의 교재에서 나타난 유형은 선택하기와 빈칸 채우기, 구어 산출하기이며, 분류하기와 바꿔/고쳐쓰기, 순서 매기기는 2종의 교재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문어 산출하기는 C 교재에서만 제시되었다.

[표 3-14] 교재별 어휘 연습활동 유형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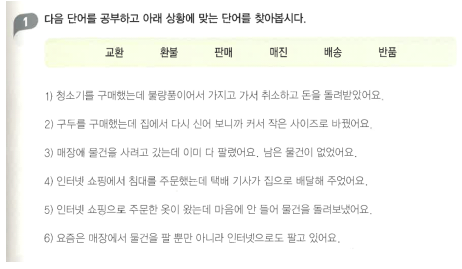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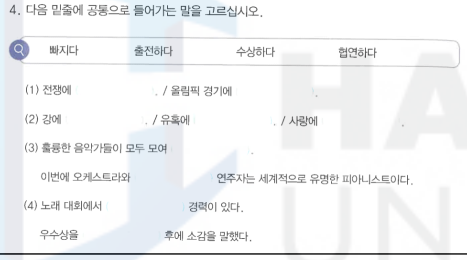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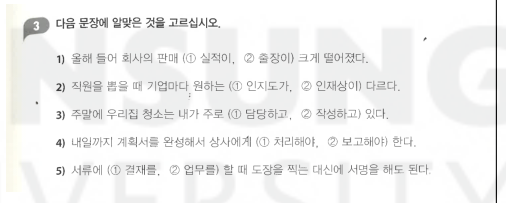
연습활동 유형	A 교재	B 교재		C 교재		D 교재	
	S	S	W	S	W	S	W
선택하기		O	O	O	O	O	
연결하기	O	O	O	O	O	O	O
분류하기			O	O			
바꿔/고쳐쓰기					O	O	
빈칸 채우기		O	O	O	O	O	O
순서 매기기		O				O	
문장 만들기	O	O	O		O	O	
구어 산출하기	O	O		O	O		
문어 산출하기				O			
교재별 합계	3	7		8		6	

S(student's book): 본 교재, W(workbook): 워크북

다음은 각각의 연습활동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선택하기 유형은 주어진 지시에 따라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는 활동이다. 선택하기 유형은 주어진 그림이나 설명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거나, 여러 문장에 공통으로 들

어갈 어휘를 선택하는 유형, 문장 안에서 두 어휘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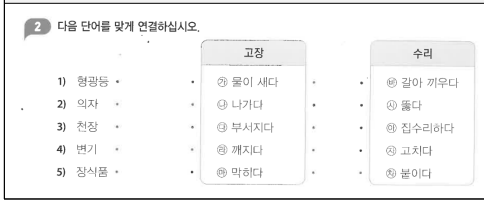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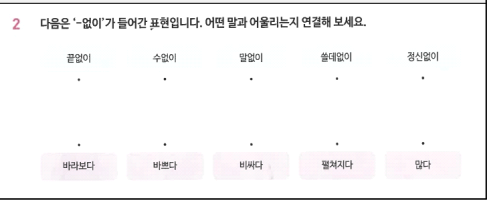
[표 3-15] 선택하기 유형 예시

유형 1[11]	유형 2[12]
	
유형 3[13]	**유형 4[14]**
	

두 번째, 연결하기 유형은 알맞은 단어-단어, 단어-그림(사진), 단어-설명, 단어-상황을 연결하는 활동으로 모든 교재에서 나타났다. 학습자는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문장에서 함께 사용되는 두 단어를 연결하며 배운 어휘의 의미와 사용법을 학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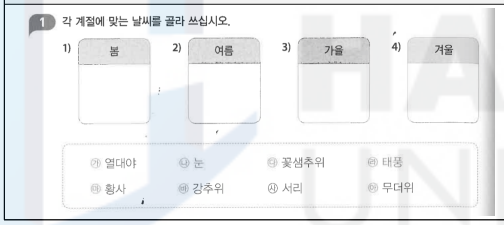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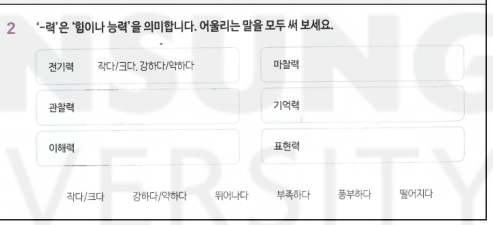
11) 『서울대 한국어+』 4A Workbook, 93p
12) 『한양 한국어』 3-1, 93p
13)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4(상), 158p
14) 『한양 한국어』 4 워크북, 25p

[표 3-16] 연결하기 유형 예시

유형 1[15]	유형 2[16]
	

세 번째, 분류하기 유형은 B 교재 3급 워크북과 C 교재 4급에서 나타난 유형이다. 의미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하거나 주어진 단어와 한 문장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분류하게 하는 유형이 있었다.

[표 3-17] 분류하기 유형 예시

유형 1[17]	유형 2[18]
	

네 번째, 바꿔/고쳐쓰기 유형은 주어진 지시에 따라 다른 단어로 바꿔쓰거나 올바르게 고쳐 쓰는 활동이다. 문장이나 문맥에 맞춰 해당 단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쓰거나 의미상, 용법상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어휘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더욱 깊게 학습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학습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연어 관계나 맥락에 따른 어휘 사용 제약이나 화용에 대해 학습하기 유리한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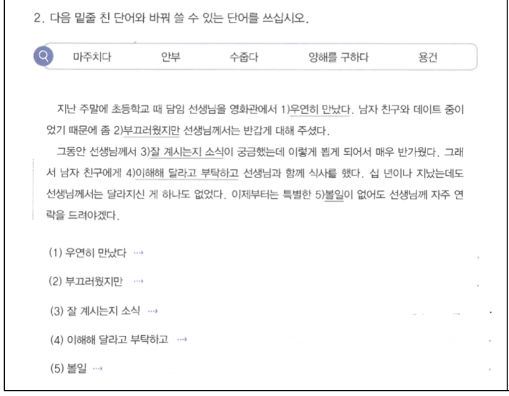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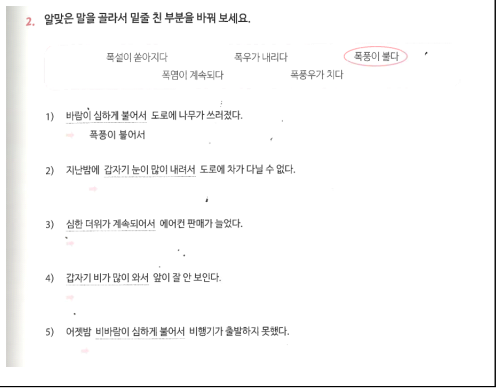
15) 『한양 한국어』 3 워크북, 133p

16) 『서울대 한국어+』 4A Student's book, 94p

17) 『한양 한국어』 3 워크북, 10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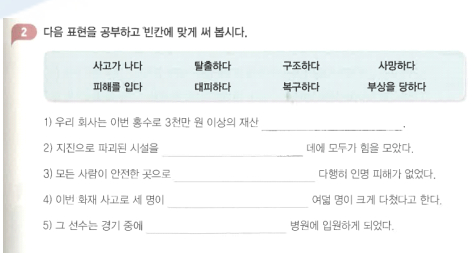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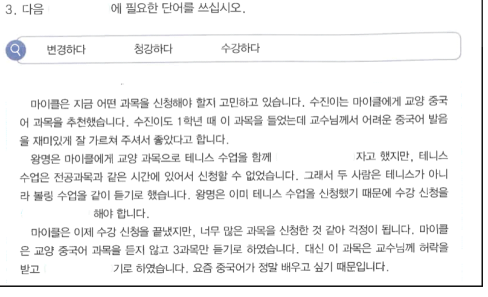
18) 『고려대 한국어』 4B, 142p

[표 3-18] 바꿔/고쳐쓰기 유형 예시

유형 1[19]	유형 2[20]
	

다섯 번째, 빈칸 채우기 유형은 주어진 문장, 대화, 짧은 글의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채워 넣는 활동이다. 학습자는 빈칸 앞뒤의 맥락을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어휘를 찾고 필요에 따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변형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목표 어휘의 의미와 형태를 학습한다.

[표 3-19] 빈칸 채우기 유형 예시

유형 1[21]	유형 2[22]
	

여섯 번째, 순서 매기기 유형은 주어진 기준에 따라 단어, 그림이나 사진

19)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4(상), 35-3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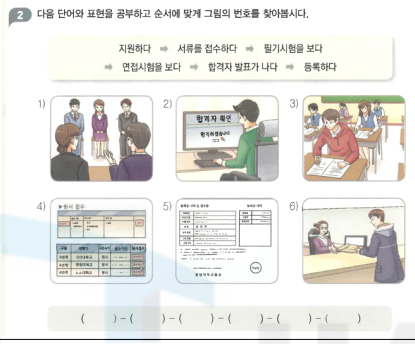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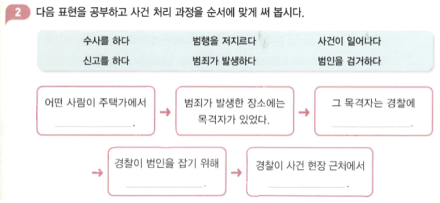
20) 『서울대 한국어+』 4A Workbook, 73p

21) 『한양 한국어』 4-2, 111p

22)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4(상), 1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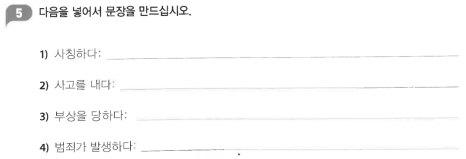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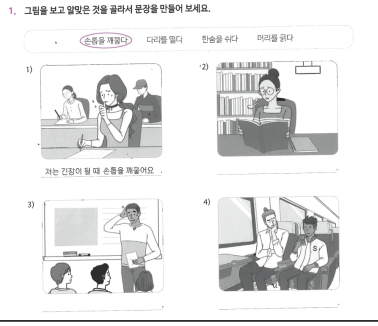
을 배열하는 활동이다. 순서 매기기 유형은 다른 유형과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빈칸 채우기와 순서 매기기가 합쳐진 경우가 있었고 연결하기 후 번호를 써서 순서를 매기는 활동이 있었다. 순서 매기기는 배운 어휘를 사용해서 담화를 구성할 때 글이나 말의 흐름을 학습자가 익힐 수 있게 한다.

[표 3-20] 순서 매기기 유형 예시

유형 1[23]	유형 2[24]
	

일곱 번째, 문장 만들기 유형은 주어진 어휘나 조건에 따라 문장을 만드는 활동으로 주로 사용해야 하는 단어를 제시하거나 그림, 그래프 등을 보고 이를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도록 구성되었다.

[표 3-21] 문장 만들기 유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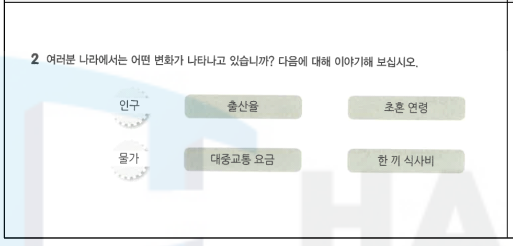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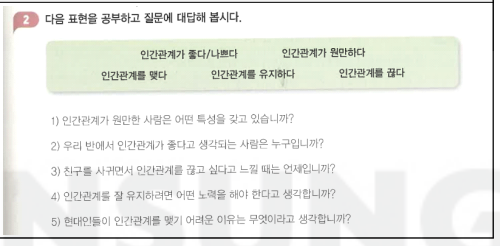
유형 1[25]	유형 2[26]
	

23) 『한양 한국어』 3-2, 41p

24) 『한양 한국어』 4-2, 103p

여덟 번째, 구어 산출하기 유형은 학습한 어휘를 사용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대화하는 구어 산출 활동이다. A 교재와 C 교재의 어휘 연습활동의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구어 산출하기 유형이었다. 하나의 주제나 질문을 제시하여 이에 대해 깊게 대화하거나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질문을 제시하여 하나의 연습활동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기도 하였다. 질문이나 주제를 제시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수행하는 활동도 나타났다.

[표 3-22] 구어 산출하기 유형 예시

유형 1[27]	유형 2[28]
	

아홉 번째, 문어 산출하기 유형은 학습한 어휘를 사용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짧은 글을 써 보는 문어 산출 활동이다. 문어 산출하기 유형은 4종의 분석 교재 중 C 교재에서 그림을 보고 옛날이야기를 만드는 활동 단 한 개만 나타났다.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문이 다소 모호하지만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을 외국인 학습자가 말로 바로 표현하기는 어려움이 있기에 쓰기 활동으로 구성된 것이라 판단하였다.

25) 『한양 한국어』 4 워크북, 89p

26) 『서울대 한국어+』 3B Workbook, 44p

27) 『고려대 한국어』 4B, 88p

28) 『한양 한국어』 4-1, 103p



[그림 3-1] 문어 산출하기 유형 예시[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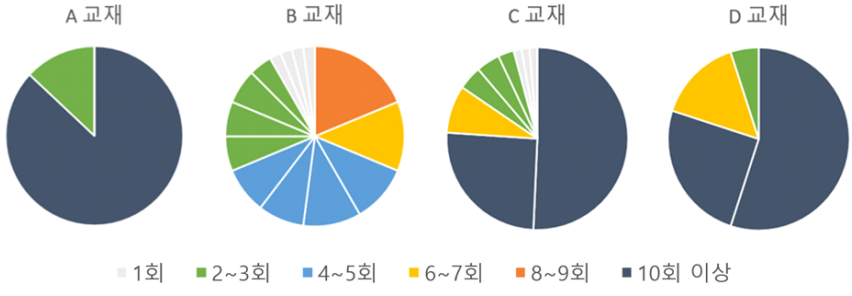
어휘 연습활동 유형의 다양성 분석 결과 C 교재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연습활동이 나타났으며 A 교재의 어휘 연습활동 유형이 가장 적었다. 이는 A 교재가 말하기 중점 활동 교재이기 때문에 구어 산출하기 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연결하기와 문장 만들기 유형은 모든 교재에서 나타났지만, 문어 산출하기는 C 교재에서만 제시되어 있었다. 특히 구어 산출하기와 비교했을 때 문어 산출하기 유형은 교재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운 어휘를 말뿐만 아니라 글로도 표현할 수 있으려면 문장 만들기에서 확장하여 여러 문장을 써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어휘 연습활동을 제시해야 하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교실에서의 어휘 연습활동이 고정된 패턴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원마다 새로 배우는 어휘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단원마다 어휘 연습활동이 같은 유형끼리 구성된다면 교실 안에서의 어휘 연습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국 유의미한 어휘 연습활동 수행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학습 목표 어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어휘 연습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3급과 4급으로 나누어 각 교재의 단원 단위로 어휘 연습활동 유형을 분석하여 단원마다 다양하게 구성되었는지, 유사한 패턴으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겠다.

29) 『서울대 한국어+』 3B, 152p

본 교재와 워크북을 종합하여 각 교재의 어휘 영역 구성에 따라 대단원 또는 소단원별로 어휘 연습활동 유형이 어떤 구성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일한 구성이 교재 내에서 얼마나 중복되는지 살펴봄으로써 단원마다 다양한 패턴으로 어휘 연습활동 유형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어휘 연습활동 유형 구성은 선택하기+연결하기, 빈칸 채우기+구어 산출하기 등 어휘 연습활동이 어떤 유형끼리 묶여서 제시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결과를 종합한 원그래프에서 분할된 칸의 개수는 단원별 어휘 연습활동 유형 구성의 경우의 수를 나타내며,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을수록 교재 내 어휘 연습활동 유형이 다양한 조합으로 묶여 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할된 칸의 넓이는 해당 유형 조합이 교재 내에서 중복되어 나타난 정도를 나타내며, 넓이가 넓을수록 같은 유형 조합이 여러 번 중복되어 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3급 교재를 분석한 결과, A 교재는 가장 적은 2가지 유형 구성만으로 어휘 연습활동이 제시되었고 B 교재는 가장 많은 14가지 유형 구성이 적게는 1회, 많게는 9회 제시되었다. 3급 교재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유형 구성은 A 교재와 C 교재 그래프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어 산출하기(+구어 산출하기)였다. 이는 B 교재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된 유형 구성이다. B 교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 구성은 연결하기+빈칸 채우기이며, D 교재에서는 빈칸 채우기(+빈칸 채우기) 유형 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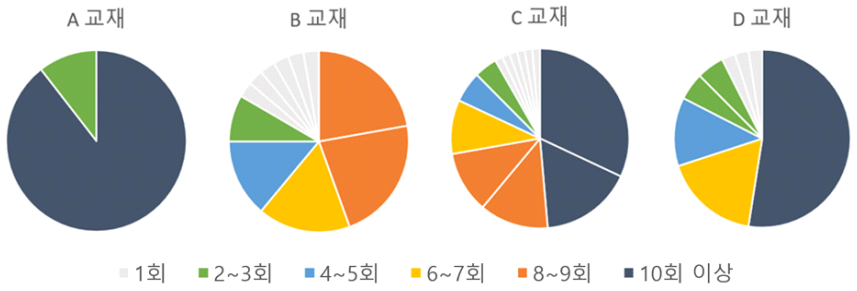
[그림 3-2] 단원별 어휘 연습활동 유형의 구성 양상(3급)[30]

30) 아래 표의 연습활동 유형 구성의 순서는 [표 2-10]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으며, 교재의

다음으로 4급 교재를 분석한 결과, 가장 적은 유형 구성이 제시된 교재는 3급과 마찬가지로 2가지 유형 구성이 제시된 A 교재였으나, 4급 교재 중 가장 많은 유형 구성이 나타난 교재는 13개의 유형 구성을 제시한 C 교재로 변화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3급 교재보다 4급 교재에서 더욱 다양한 어휘 연습활동 유형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재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유형 구성을 살펴보면 A 교재와 C 교재는 구어 산출하기(+구어 산출하기)이며, B 교재는 빈칸 채우기+구어 산출하기, D 교재는 빈칸 채우기(+빈칸 채우기)로 나타났다.

제시 순서와는 관계없음.

교재	제시 횟수	연습활동 유형 구성	
A 교재	20회	구어 산출하기(+구어 산출하기)	2가지
	3회	연결하기+구어 산출하기	
B 교재	9회	연결하기+빈칸 채우기	14가지
	6회	구어 산출하기(+구어 산출하기)	
	5회	선택하기+연결하기, 선택하기+빈칸 채우기	
	4회	선택하기+문장 만들기, 선택하기+연결하기+빈칸 채우기	
	3회	선택하기+구어 산출하기, 선택하기(+선택하기), 빈칸 채우기(+빈칸 채우기)	
	2회	연결하기+구어 산출하기	
	1회	문장 만들기+구어 산출하기, 순서 매기기+구어 산출하기, 문장 만들기(+문장 만들기), 연결하기+문장 만들기	
C 교재	36회	구어 산출하기(+구어 산출하기)	9가지
	18회	빈칸 채우기+구어 산출하기	
	6회	연결하기+빈칸 채우기+구어 산출하기	
	3회	연결하기+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빈칸 채우기)	
	2회	빈칸 채우기+문장 만들기+구어 산출하기	
	1회	선택하기+빈칸 채우기, 연결하기+빈칸 채우기+문장 만들기+구어 산출하기, 선택하기+연결하기+구어 산출하기	
D 교재	22회	빈칸 채우기(+빈칸 채우기)	4가지
	10회	선택하기+연결하기+빈칸 채우기	
	6회	연결하기+빈칸 채우기	
	2회	선택하기+빈칸 채우기	



[그림 3-3] 단원별 어휘 연습활동 유형의 구성 양상(4급)[31]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가장 다양한 어휘 연습활동 유형이 제시된 교재는 C 교재였지만 단원별로 살펴봤을 때 단원마다 다른 유형끼리 묶어 제시한 양상이 크게 나타난 교재는 B 교재였다. 또한 3급과 4급 교재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교재는 어휘 연습활동 유형 구성의 가지 수가 2배 증

31)

교재	제시 횟수	연습활동 유형 구성	
A 교재	17회	구어 산출하기(+구어 산출하기)	2가지
	2회	문장 만들기+구어 산출하기	
B 교재	8회	빈칸 채우기+구어 산출하기, 선택하기+빈칸 채우기+문장 만들기	11가지
	6회	연결하기+빈칸 채우기	
	5회	선택하기+빈칸 채우기	
	3회	빈칸 채우기(+빈칸 채우기)	
	1회	선택하기+구어 산출하기, 선택하기+빈칸 채우기+구어 산출하기, 선택하기+연결하기, 구어 산출하기(+구어 산출하기), 선택하기+연결하기+문장 만들기, 선택하기+연결하기+빈칸 채우기+문장 만들기	
C 교재	23회	구어 산출하기(+구어 산출하기)	13가지
	12회	빈칸 채우기+구어 산출하기	
	9회	연결하기+빈칸 채우기+구어 산출하기	
	8회	연결하기+빈칸 채우기	
	7회	선택하기+구어 산출하기	
	4회	분류하기+구어 산출하기	
	3회	빈칸 채우기(+빈칸 채우기)	
	1회	연결하기+구어 산출하기, 선택하기+바꿔/고쳐쓰기+빈칸 채우기, 연결하기+빈칸 채우기+문장 만들기, 바꿔/고쳐쓰기+빈칸 채우기, 바꿔/고쳐쓰기+빈칸 채우기+구어 산출하기, 선택하기+빈칸 채우기	
D 교재	21회	빈칸 채우기(+빈칸 채우기)	8가지
	7회	선택하기+연결하기+빈칸 채우기	
	5회	선택하기+빈칸 채우기	
	2회	바꿔/고쳐쓰기+빈칸 채우기, 연결하기+빈칸 채우기	
	1회	선택하기+바꿔/고쳐쓰기+빈칸 채우기, 선택하기+연결하기+빈칸 채우기+문장 만들기, 선택하기+연결하기+순서 만들기+빈칸 채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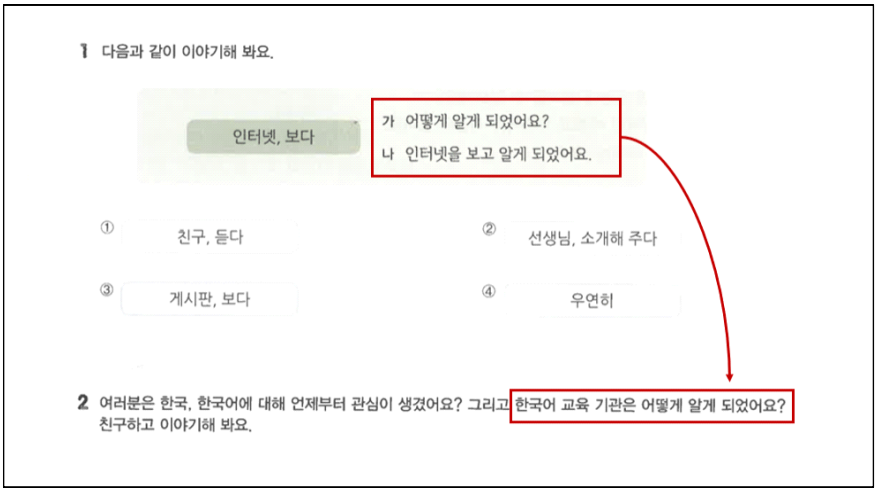
가한 D 교재였다. 교실 안에서의 어휘 연습활동을 수행할 때 학습자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이고 매번 유사한 패턴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어휘 연습활동을 제시하고 단원마다 새로운 구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2.3 학습 목표 어휘의 반복 활용 여부

교실에서 배운 어휘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여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어휘를 접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Laufer(1998)에서는 학습자의 수용적 어휘 지식 수준이 낮을 때는 가장 빈도가 높고 유용한 어휘로 구성하여 표현하지만,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어휘의 산출적 사용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본 절에서는 학습자가 연습활동을 통해 새로 배운 어휘를 반복해서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연습활동이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교재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어휘군에 따른 연습활동이 몇 개가 제시되는지 살펴보았다. 단원별로 제시된 연습활동의 개수가 여러 개일지라도 각 연습활동에서 모두 다른 어휘를 다룬다면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새로 배운 어휘를 반복해서 연습하기 어렵다. 교재에서는 단원 안에서 어휘 주제에 따라 어휘를 제시하거나 단원의 주제별로 어휘를 제시한다. 한 어휘 주제 또는 단원별 주제를 가지고 구성된 어휘 연습활동의 개수를 파악해 보았다.

A 교재는 하나의 어휘군을 제시할 때 이에 대해 대부분 2개의 연습활동을 제시하였다. 대부분 먼저 간단한 말하기 연습활동을 통해 어휘의 의미와 형태를 익히고 두 번째 연습활동에서는 학습 목표 어휘와 관련 있는 주제나 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배운 어휘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개로 구성된 연습활동은 분리되지 않고 첫 번째 활동에서 연습한 문장을 두 번째 활동에서 활용해 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 목표 어휘를 반복해서 발화하면서 실제 의사소통에서의 사용을 위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4] A 교재 어휘 반복 활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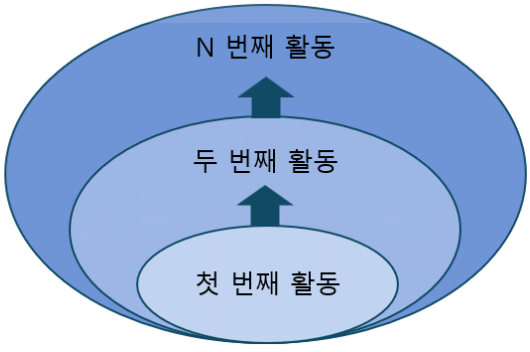
B 교재는 하나의 어휘군에 대한 연습활동이 한 개씩 제시되었다. 그러나 B 교재의 구어 산출하기 유형 중 질문을 제시하는 경우, 3개~5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질문들은 같은 어휘군에 대한 질문이기에 서로 연관되어 있어 한 연습활동에서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유형의 연습활동에서는 반복 학습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B 교재 워크북은 어휘군마다 1~2개의 연습활동이 구성되어 있어 본 교재에서 부족했던 어휘 학습을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워크북 연습활동에서 몇몇 어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배운 모든 어휘를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C 교재는 3급과 4급 교재 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3급은 하나의 어휘군에 대해 1개~3개의 연습활동이 제시되었다. 두 개 이상의 연습활동으로 구성된 경우, 첫 번째 연습활동에서 간단한 주제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 뒤, 두 번째 연습활동에서는 이를 포괄하는 좀 더 큰 주제를 제시하였다. 4급은 하나의 어휘군에 대한 연습활동이 한 개씩 제시되었다. 따라서 교재의 구성대로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 어휘를 반복해서 연습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C 교재 워크북은 해당 단원에서 새로 배운 어휘를 모두 활용하여 연습활동이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교재와 워크북의 연습활동을 수업에서 함께 활용한다면 반복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D 교재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의 연습활동을 제시하여 가장

많은 개수의 연습활동이 나타났다. 하지만 각각의 연습활동에서 다루는 어휘가 서로 겹치지 않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 목표 어휘를 반복해서 학습하기는 어려우나, 빈칸 채우기 유형의 경우 제시된 문장 속에 나타난 학습 목표 어휘를 통해 학습자에게 반복해서 노출되기도 하였다. 다만 D 교재의 워크북은 해당 단원에서 배운 단어를 활용한 빈칸 채우기 활동 하나만을 제시하여 본 교재에서 다소 미흡했던 어휘 반복 학습을 충분히 보완하기 어려워 보였다.

학습 목표 어휘의 반복 활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연습활동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어휘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많은 연습활동이 제시된 C 교재는 본 교재와 워크북을 함께 활용한다면 충분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B 교재와 D 교재는 본 교재에서 미흡했던 반복 학습을 워크북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누락되는 어휘가 있거나 학습 목표 어휘를 한 번씩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연습활동의 개수가 가장 적은 A 교재에서 학습 목표 어휘의 반복 활용이 더 잘 드러났다. 연습활동의 개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휘를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 연습활동이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3-5] 어휘 반복 활용 연습활동의 학습 형태

연습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개로 제시된 연습활동이 같은 어휘군을 다루면서, 앞선 연습활동을 통해 그다음 연습활동을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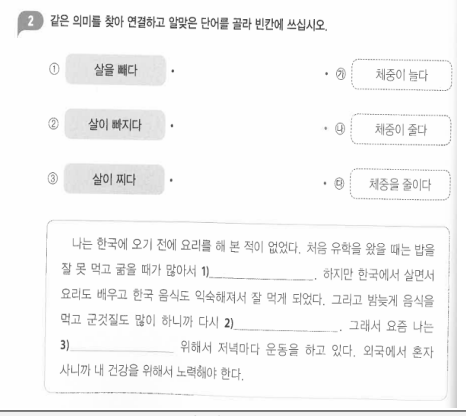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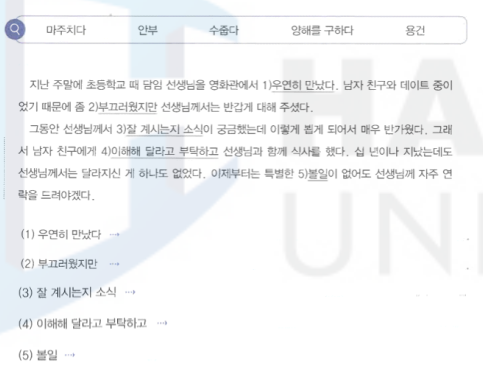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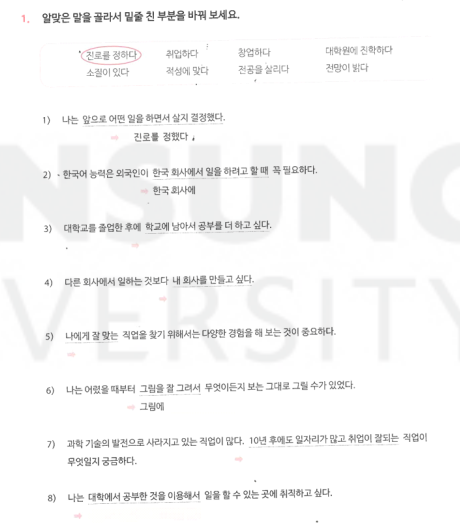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점차 높은 수준의 어휘 이해와 산출을 유도하는 형태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실질적인 어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어휘 사용에 점점 가까워지는 반복적인 어휘 학습을 제시해야 한다.

3.2.4 어휘 배경지식을 활용한 연계 학습 유도

어휘는 언어 속에서 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모여 상하 관계를 맺거나 유의적, 반의적 관계를 맺는다(류승의·정대우, 2020:40). 그러므로 유의어와 반의어, 상·하위어와 같이 의미 관계를 가지는 어휘를 활용한 연습활동은 학습자의 어휘 의미 이해 및 이해 확장을 돕는다. 이때 학습자들의 이미 배우고 학습해서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어휘를 활용하여 스키마를 활성화한다면 학습자의 어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습 목표 어휘의 이해와 산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4종의 교재 중 B 교재, C 교재, D 교재에서 유의 관계를 활용하여 어휘 배경지식과 연계한 연습활동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연결하기 또는 바꿔/고쳐쓰기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그중 유의 관계 활용과 의미나 뜻풀이 제시가 혼동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쉬운 어휘나 표현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넓은 범위에서 두 경우 모두 어휘 배경지식과 연계된 연습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표 3-23] 유의 관계 활용 연습활동 예시

<table>
<tr><th>예시 1[32]</th><th>예시 2[33]</th></tr>
<tr><td>
</td><td>
</td></tr>
<tr><th>예시 3[34]</th><th>예시 4[35]</th></tr>
<tr><td>
</td><td>
</td></tr>
</table>

또한 D 교재는 다른 교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반의 관계와 상하 관계를 활용한 연습활동을 제시하였다. 주어진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를 연결하는 활동, 상위어와 하위어를 연결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D 교재의 반의 관계 활용 연습활동에는 학습 목표 어휘에 포함되거나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쉬

32)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4(하), 93p

33) 『한양 한국어』 3 워크북, 82p

34)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4(상), 36p

35) 『서울대 한국어+』 4A Workbook, 14p

운 어휘가 제시되었다. 상하 관계가 활용된 연습활동에서는 학습 목표 어휘인 직함, 호칭, 별명에 포함되는 하위어를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을 만한 쉬운 어휘로 제시하고 알맞은 어휘끼리 연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반의 관계나 상하 관계의 어휘 배경지식을 활용한 연습활동은 학습자가 새로 배운 어휘와 타 어휘의 의미를 연관 지어 이해하면서 어휘 지식을 넓히고 어휘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3-24] 반의/상하 관계 활용 연습활동 예시

반의 관계 활용 예시[36]	상하 관계 활용 예시[37]
2. 다음 중 뜻이 반대되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1) 잠그다 • • 냉수 (2) 절약하다 • • 홍수 (3) 가뭄 • • 틀다 (4) 온수 • • 낭비하다	2. 다음에 맞는 단어를 연결하십시오. (1) 키다리, 강아지, 아기, 호랑이 • • 직함 (2) 오빠, 선배, 선배님 • • 호칭 (3) 대리, 과장, 부장, 사장 • • 별명

어휘 배경지식을 활용한 연계 학습 유도 여부를 의미 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유의 관계가 활용된 연습활동이 가장 많은 교재에서 나타났고 반의 관계와 상하 관계를 활용한 연습활동은 한 교재에서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비중은 매우 작었다. 어휘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목적은 이미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지식을 통해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어휘 습득을 돕고 장기 기억화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의미 관계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스키마 활성화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교실 수업에서 어휘 배경지식을 연계함으로써 학습자의 효과적인 어휘 습득을 도울 필요가 있다.

3.2.5 언어기능과의 통합성

본 절에서는 교재의 어휘 연습활동이 듣기와 읽기, 말하기와 쓰기 기능과

36)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3(하), 129p

37)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3(하), 71p

통합하여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가 배운 어휘를 실제 의사소통에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면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어휘 교육이 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실질적인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언어기능을 통합한 어휘 연습활동이 필요하다.

먼저 어휘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한 듣기와 읽기 기능 통합 연습활동이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읽기 기능과 듣기 기능이 통합된 어휘 연습활동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단락 형식의 짧은 글을 읽고 수행하는 활동은 빈칸 채우기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단락 빈칸 채우기 활동은 단락에 나타난 학습 목표 어휘를 읽고 이해하기보다 어떤 어휘를 삽입해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연습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휘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기능이 통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듣기 기능 통합 연습활동은 넓게 바라보면 말하기 기능 통합 활동과 함께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학습 목표 어휘를 사용해서 친구와 인터뷰를 하는 말하기 연습활동이 교재에서 나타났다. 친구가 하는 질문과 대답을 듣고 이해해야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뷰 유형의 연습활동은 듣기와 말하기 기능이 모두 통합된 연습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어휘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말하기와 쓰기 기능 통합 연습활동을 살펴봤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통합된 언어기능은 말하기 기능이었다. 앞서 어휘 연습활동 유형에서 구어 산출하기 유형으로 살펴봤듯이 사용 단계에서 말하기 기능과 통합하여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재 자체를 말하기 중점 교재로 개발하여 말하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쓰기 기능은 문장 만들기 유형과 같은 문장 단위의 쓰기 활동으로만 나타났다. 배운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생성해 내는 연습이 어휘 표현 능력에 물론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문장을 넘어서 단락이나 긴 글에서 배운 어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장 쓰기 연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어휘 학습 후 배운 어휘를 실제 의사소통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듣기와 읽기 상황에서 어휘를 이해하고, 말하기와 쓰기 상황에서 어휘를 적절히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교재에서 나타난 말하기 통합 활동뿐만 아니라 어휘 학습을 위한 듣기, 읽기, 쓰기 통합 활동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2.6 실제성 있는 자료 활용

어휘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풍부한 어휘 사용 능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강현화·홍혜란, 2009:15). 따라서 실생활에서 접하게 될 실제성 있는 자료들을 연습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현화·홍혜란(2009)에서는 실제성을 살릴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급수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표 3-25] 실제성을 살릴 수 있는 자료 예시[38)]

기능	자료 예시
정보 전달	안내문(관광 안내문, 건물 안내도, 기상 안내도, 음식 조리법, 가전제품 보증서, 슈퍼마켓/음식 배달 전단지, 생활 정보지, 제품 사용 매뉴얼, 구인구직 광고), 기사문(뉴스레터, 신문 기사, 신문 칼럼), 보고서, 설명문, 일정표, 기차표, 할인 쿠폰, 달력, 메뉴판, 상품 라벨, 시험지, 여행 일정표, 영수증, 전화번호부, 지도, 처방전, 팸플릿 등
설득	논설문, 광고, 신문 광고 등
표현	소개문, 에세이, 인터뷰, 일기문, 지원서 등
문학	소설, 전기문 등
친교	e-mail, 쪽지, 편지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청첩장, 초대장 등

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이나 맥락을 보여주는 그림이나 사진, 예문을 통해 학습자는 배운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고 어휘를 어느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인지할 수 있게 된다.

A 교재는 그림과 사진, 예문을 활용하였다. 어휘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영화 포스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구성된 활동도 제시하였다. 대화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는 배운 어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익힐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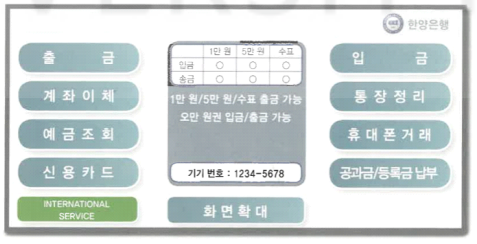
38) 강현화·홍혜란(2009:15)에서 제시한 실제성 있는 자료 목록을 기능별로 재구성함.



[그림 3-6] A 교재 영화 포스터 시각 자료[39]

B 교재는 그림과 사진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단순히 어휘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통해 활발한 말하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 대학의 수강 신청 화면과 유사한 자료나 은행 ATM 기기 화면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배운 어휘를 실제로 접하게 될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26] B 교재 실제성 자료 예시

수강신청 페이지 화면 자료[40]	ATM 화면 자료[41]
	

C 교재는 그림과 사진, 조사 결과를 나타내는 표나 그래프, 식당 메뉴판, 학과 일정표, 가계부, 채용 공고 등 실제성 있는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한 교재였다. 교재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교실 안에서도 실제성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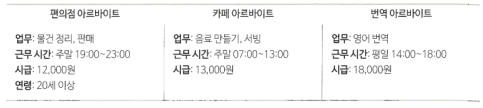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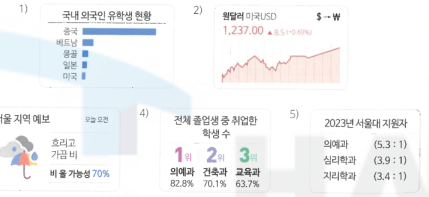
39) 『고려대 한국어』 4A, 70p

40) 『한양 한국어』 3-2, 49p

41) 『한양 한국어』 3-2, 129p

연습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말풍선 형태로 예문 제시를 하고 있었다.

[표 3-27] C 교재 실제성 자료 예시

<table>
<tr><th>가계부 자료42)</th><th>채용 공고 자료43)</th></tr>
<tr><td>
</td><td>
</td></tr>
<tr><th>표와 그래프 자료44)</th><th>학과 일정표 자료45)</th></tr>
<tr><td>
</td><td>
</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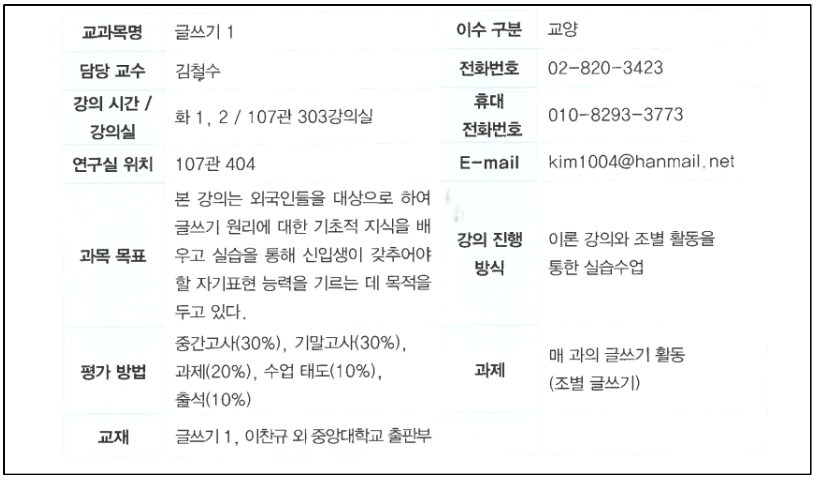
D 교재는 실제성 있는 자료 활용이 가장 적게 나타난 교재였다. 그림이나 사진, 시각 자료가 없는 페이지가 많이 보였지만 D 교재 3급 9과와 10과의 음식과 맛, 조리법 어휘에 대한 연습활동에서 음식 사진을 활용하였다. 또한 대학의 강의 계획서 자료를 제시하여 대학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어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서울대 한국어+』 3A Student's book, 120p

43) 『서울대 한국어+』 3B Student's book, 120p

44) 『서울대 한국어+』 4A Student's book, 126p

45) 『서울대 한국어+』 3A Workbook, 20p



교과목명	글쓰기 1	이수 구분	교양
담당 교수	김철수	전화번호	02-820-3423
강의 시간 / 강의실	화 1, 2 / 107관 303강의실	휴대 전화번호	010-8293-3773
연구실 위치	107관 404	E-mail	kim1004@hanmail.net
과목 목표	본 강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글쓰기 원리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신입생이 갖추어야 할 자기표현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의 진행 방식	이론 강의와 조별 활동을 통한 실습수업
평가 방법	중간고사(30%), 기말고사(30%), 과제(20%), 수업 태도(10%), 출석(10%)	과제	매 과의 글쓰기 활동 (조별 글쓰기)
교재	글쓰기 1, 이찬규 외 중앙대학교 출판부		

[그림 3-7] D 교재 강의 계획서 자료[46)]

분석 교재에서 그림과 사진은 모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담화 상황이나 맥락, 어휘 사용법을 알 수 있는 예문 제시가 미흡한 교재가 있었으며, e-mail, 휴대폰 문자 메시지, 여행 일정표 등 실제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 활용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의 흥미 유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해 실제성 있는 자료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

3.3 한국어 교재 분석 결과

지금까지 여섯 가지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기관에서 출판한 중급 통합교재의 어휘 연습활동을 분석하였다. 각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를 '인지 및 확인 단계', '맥락화 단계', '사용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지 및 확인 표단계는 모든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맥락화 단계와 사용 단계는 교재에 따라 제시되지 않거나 두 단계 중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학습자들이 배운 어휘를 실제

46)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4(상), 16p

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활동이 적절히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 단계의 연습활동은 말하기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쓰기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구어와 문어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단계의 연습활동이 단계 순서와 관계없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학습자들이 느끼는 어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어휘 습득을 위해 단계 순서에 맞게 연습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어휘 연습활동 유형의 다양성을 살펴보았는데, 앞서 연습활동의 유형을 '선택하기', '연결하기', '분류하기', '바꿔/고쳐쓰기', '빈칸 채우기', '순서 매기기', '문장 만들기', '구어 산출하기', '문어 산출하기' 9가지로 구분하였다. 연결하기와 문장 만들기 유형은 모든 교재에서 나타났다. 선택하기와 연결하기 유형은 같은 유형 안에서도 단어, 문장, 그림이나 사진 등 무엇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결하기는 변형이 용이한 유형인 만큼 학습자들이 이미 배운 어휘를 연계하여 활동을 구성한다면 어휘 의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분류하기 유형은 어휘의 의미 관계나 연어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어휘를 분류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유형은 2종의 교재에서 나타났으며, 어휘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기에 해당 유형을 제시할 수 있는 어휘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바꿔/고쳐쓰기 유형은 문장 또는 단락, 대화문 안에서 밑줄 친 부분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거나 의미상, 용법상 잘못된 곳을 고쳐 쓰도록 제시되었다. 해당 유형을 통해 학습자의 어휘 이해 점검과 어휘 사용 제약 또는 화용에 대해 학습이 가능하다. 빈칸 채우기 유형에는 문장 빈칸 채우기와 짧은 글 빈칸 채우기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는 문장이나 글의 맥락을 파악하여 알맞은 어휘를 찾고 문법에 맞게 변형하여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 빈칸 채우기 유형에서 보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품사의 어휘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순서 매기기 유형은 시간이나 과정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어휘들을 학습할 때 활용되고 있었으며 다른 유형과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분석 대상인 모든 교재에서 제시가 미흡했던 쓰기 활동을 순서 매기기 유형과 혼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순서를 매긴 후 그 순서

대로 문장을 써서 짧은 글쓰기를 수행해 본다면 문장 생성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문장 만들기 유형은 어휘를 조합하여 문장을 만들거나 제시된 그림 또는 그래프 등을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사용해야 하는 단어가 주어진 경우는 학습한 어휘를 의미와 문법에 맞게 문장에서 활용하는 연습에 초점을 둔다면 제시된 자료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보다 학생 스스로 의미를 떠올리고 문장을 생산하는 연습이 가능할 것이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성 있는 자료들을 해당 유형에서 적절히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어 산출하기와 문어 산출하기 유형은 어휘 연습활동의 마지막 사용 단계에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교재의 어휘 연습활동은 구어 산출하기 유형에 집중되어 있었고 문어 산출하기 유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구어 산출하기 유형은 대화하기와 주제에 대한 말하기 활동으로 나뉘었다. 학습한 어휘를 사용해서 대화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이 학습자의 교실 밖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재에서 제시하는 주제나 상황이 실제 의사소통 담화 상황을 유사하게 반영하였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학습 목표 어휘의 반복 활용 여부이다. 학습자들이 배운 어휘를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배운 어휘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연습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학습자가 직접 말하고 써서 표현하거나 다른 학습자의 표현을 통해 직접·간접적으로 학습 목표 어휘에 노출될 수 있으나, 어휘 연습활동을 통한 의미 있는 반복 학습 유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재에서는 지면의 한계의 영향도 있겠지만, 연습활동의 개수가 물리적으로 적거나 어휘가 한 번씩만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연습활동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반복적인 어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연습활동이 분리되어 다른 어휘를 다루고 있다면 학습자는 반복해서 어휘를 연습할 수 없게 된다.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어휘 반복 학습을 위해서 각 어휘군을 다루는 여러 개의 연습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점점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계단식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점차 넓고 깊은 어휘 이해와 산출 연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학습 목표 어휘를 장기 기억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분석 기준에 따라 어휘 배경지식을 활용한 연계 학습 유도 여부를 살펴보았다. 김지영(2004)은 어휘 의미에 대한 교육에서 의미 정보와 의미 관계 정보, 정도성 정보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의미 관계 정보를 통해 학습자들은 표현의 적절성과 어휘력을 높일 수 있고 정도성 정보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어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스키마 활성화를 통해 어휘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 교재에서의 어휘 배경지식 활용 연계 학습을 의미 관계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유의 관계 활용 연습활동은 대부분의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었으나, 반의 관계나 상하 관계 활용은 비중이 매우 작았다. 학습자의 효과적인 어휘 의미 이해를 위해서는 어휘 배경지식을 활용한 연계 학습을 유도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어휘 연습활동의 언어기능과의 통합성을 살펴보았다. 어휘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형성하는 데 기본이 된다(류경숙·윤수정, 2020:2). 다른 말로 하면 어휘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수행해 내기 위한 어휘 능력을 향상하게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언어기능과 통합된 연습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 교재의 어휘 연습활동은 말하기 기능을 통합한 활동에만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다. 읽거나 들어서 어휘를 이해할 때와 쓰거나 말해서 어휘를 표현할 때 요구되는 어휘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어휘를 학습자의 실질적인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말하기 기능뿐만 아니라 어휘 연습활동에서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을 적절히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실제성 있는 자료 활용이다. 교실 안에서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과 최대한 유사한 상황이나 맥락 안에서 어휘를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성 있는 자료란 담화 상황이나 맥락을 보여주는 예문이나 시각적 자료, 담화 텍스트 등을 가리킨다. 기존 교재들에서 그림이나 사진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판, 가계부 등 실제성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교재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에서의 어휘 수업은 학습 목표 어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학습 목표 어휘 안에서 사고하고

표현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교사가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 어휘를 말하고 쓰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어휘 중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여 이해하고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교실 안에서의 어휘 연습활동을 교실 밖 의사소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이지 않은 실제 의사소통과 유사한 담화 상황 속에서의 연습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HANSUNG UNIVERSITY

Ⅵ. 한국어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

4.1 어휘 연습활동 구성 원리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어 중급 통합교재의 연습활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교실 안에 배운 어휘를 교실 밖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8가지의 한국어 어휘 연습활동 구성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1)]

첫째는 이해-산출의 원리이다.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배운 어휘를 이해하고 스스로 산출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연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어휘 연습활동 구성 원리 전체의 토대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이다.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휘 연습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휘 이해를 넘어 실제 의사소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산출까지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휘 이해와 산출 능력을 연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어휘 연습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는 유의미적 산출 활동의 원리이다. 유의미한 연습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실생활에서의 기능 수행을 실현하는 어휘 연습활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의미한 연습활동이란 실생활에서 있을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연습을 말하며, 이는 학습자가 연습한 것을 그대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연습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점을 위해 사용 단계에서의 연습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담화를 산출하여 기능 수행을 실현할 수 있는 연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는 단계 설정의 원리이다. 어휘 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교실 안에서의 어휘 연습활동은 ‘인지 및 확인 단계’, ‘맥락화 단계’, ‘사용 단계’의 각 단계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유의미한 어휘 산출 활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연습활동을 갖춰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연습활동 유형의 다양성은 학습자의 효과적인 어휘 학습과 흥미 유발을 위해 교재 분석 기준으로 삼았으나, 연습활동 구성 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원리들과 중첩되는 내용이 되기에 제외하게 되었다.

이어서 넷째는 단계적 절차의 원리이다.[2] 어휘 연습활동은 '인지 및 확인 단계-맥락화 단계-사용 단계' 세 단계의 순서에 따라 학습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점차 심화되는 연습활동을 순서대로 수행하면서 학습자가 느끼는 연습활동의 난도를 낮춰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자의 어휘 이해와 산출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기 위함이다.

다섯째는 반복성의 원리이다. 학습자가 연습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배운 어휘를 여러 번 접하고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학습한 어휘 의미와 용법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습자 본인이 말하거나 써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 다른 학습자가 표현하는 것을 듣거나 읽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어휘 연습활동 구성을 통해 교실 안에서 학습자가 배운 어휘에 반복적으로 점차 수준 높은 연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는 배경지식 연계의 원리이다. 학습자의 어휘 습득을 돕기 위해 기존에 배운 어휘를 활용하여 어휘 배경지식과 연계된 연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이미 배우고 습득한 어휘 배경지식과 새롭게 학습하는 어휘 지식의 연계를 통한 스키마의 활성화를 일으킴으로써 학습자의 어휘 습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일곱째는 언어기능 통합의 원리이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어휘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언어기능과 통합된 어휘 연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전제되는 인지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심지연, 2022:145). 따라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자가 배운 어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듣기와 읽기 상황에서 이해하고 말하기와 쓰기 상황에서 표현하는 연습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는 실제성의 원리이다. 학습 목표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을 위해 실제성 있는 의사소통 담화 상황에서의 연습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연습활동에서 담화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나 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들은 실제성을 가져야 한다. 어휘 학습을 위해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전형적이고 실제로 있을법한 담화

2) 단계 설정의 원리와 단계적 절차의 원리가 큰 범주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각 원리의 성격이 차별화되어 있기에 분절적으로 기술하였다.

상황 속에서 학습자가 어휘를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

[표 4-1] 어휘 연습활동의 구성 원리

이해-산출의 원리	어휘 이해와 산출의 연계성 강화
유의미적 산출 활동의 원리	실생활에서의 기능 수행 중심
단계 설정의 원리	연습활동 단계의 체계 구축
단계적 절차의 원리	연습활동 단계의 절차적인 제시
반복성의 원리	유기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장기 기억화 유도
배경지식 연계의 원리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어휘 습득 효율 증진
언어기능 통합의 원리	이해(듣기, 읽기)와 표현(말하기, 쓰기) 기능 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실제성의 원리	전형적이고 실제적인 담화 상황과 맥락 제공

위의 어휘 연습활동의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배운 어휘를 교실 밖에서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활동 구성이 필요하다.

4.2 교실 수업 환경에서의 적용 방안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어휘 연습활동 구성 원리를 교실 수업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제시하고자 한다. '인지 및 확인 단계 – 맥락화 단계 – 사용 단계'의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어휘 연습활동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어휘 연습활동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4.2.1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별 유형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학습 목표 어휘의 특성과 주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어휘 연습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앞서 어휘 연습활동의 구성 원리를 적용하여 단계별로 어휘 연습활동을 구성하기 위해 교실 수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휘 연습활동의 유형을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 및 확인 단계', '맥락화 단계', '사용 단계'의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연습활동 유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지 및 확인 단계'의 연습활동은 학습 목표 어휘의 중심의미 및 형태 확인을 목표로 하며 어휘 자체에 중점을 둔 단어 차원의 연습 단계이다.

[표 4-2] '인지 및 확인 단계' 연습활동의 유형

	목표 및 특성	세부 유형
선택하기	보기에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휘의 중심의미를 확인함	- 보기에서 그림/설명/상황에 맞는 어휘 선택하기 - 보기에서 자료에 들어갈 어휘 선택하기 - 대화나 설명을 듣고 보기에서 관련 어휘 선택하기 - 제시된 두 어휘 중 문장에 적절한 어휘 선택하기 - 제시된 여러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휘 선택하기
연결하기	하나의 어휘에 대응하는 선택지가 두 개 이상일 때 어휘의 중심의미나 용법을 확인함	- 알맞은 어휘+어휘 연결하기 - 알맞은 어휘+그림 연결하기 - 알맞은 어휘+설명/상황 연결하기 - 대화나 설명을 듣고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기
순서 매기기	정도성, 연속성 등을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 확인에 유리함	- 제시된 어휘 순서에 따라 그림에 번호 매기기 - 제시된 그림 순서에 따라 어휘에 번호 매기기 - 제시된 어휘를 순서에 따라 번호 매기기

어휘 교체 말하기	실제성 높은 예문을 통해 문장에서의 용법을 확인하고 배운 어휘의 발화 기회를 확대함	- 문장이나 대화문 예문에 나타난 어휘를 제시된 다른 어휘로 교체하여 말하기

인지 및 확인 단계에 적절한 연습활동 유형에는 선택하기, 연결하기, 순서 매기기, 단어 교체 말하기가 있다. 선택하기 유형은 보기에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휘의 중심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하기 유형에 해당하는 세부 유형에는 보기에서 그림 또는 설명 또는 상황에 맞는 어휘 선택하기, 보기에서 자료에 들어갈 어휘 선택하기, 대화나 설명을 듣고 보기에서 관련 어휘 선택하기, 제시된 두 어휘 중 문장에서 적절한 어휘 선택하기, 제시된 여러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휘 선택하기가 있다. 선택하기 유형에서는 안내문, 광고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화면 등 실제성 있는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연결하기 유형은 어휘와 어휘, 어휘와 그림, 어휘와 설명 또는 상황을 제시하고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며 어휘의 중심의미나 용법을 확인하도록 한다. 선택하기 유형과 달리 연결하기 유형은 하나의 어휘에 대응하는 선택지가 두 개 이상일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선택하기 유형과 마찬가지로 대화나 설명을 듣고 알맞은 어휘나 그림, 설명 등을 연결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순서 매기기 유형의 세부 유형에는 제시된 어휘 순서에 따라 그림에 번호 매기기, 제시된 그림 순서에 따라 어휘에 번호 매기기, 제시된 어휘를 순서에 따라 번호 매기기가 있다. 그림과 어휘 중 어느 하나를 순서대로 제시하고 이에 맞게 번호를 매기도록 한다. 또는 힌트가 될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어휘의 중심의미만으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기도록 한다. 순서 매기기 유형은 정도성이나 연속성 등을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기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단어 교체 말하기는 문장이나 대화문 형식의 보기 예문을 제시하고 예문 속 어휘를 교체하여 말하는 활동이다. 실제성 높은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는 문장에서의 용법을 확인하고 배운 어휘를 반복해서 발화할 수 있는 기

회를 얻게 된다.

‘맥락화 단계’의 연습활동은 학습 목표 어휘의 주변 의미 또는 의미적 제약, 타 어휘와의 의미 관계 등을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어휘 사용을 학습하며 어휘 간의 관계 및 문장 차원의 연습 단계이다. 또한 학습 목표 주제 이외에 배운 어휘가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 확장을 통한 연습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표 4-3] ‘맥락화 단계’ 연습활동의 유형

	목표 및 특성	세부 유형
연결하기	타 어휘와의 관계성을 통해 어휘 의미 및 용법 이해를 확장함	- 유의/반의/상하 등의 의미 관계가 있는 어휘끼리 연결하기 - 연어 관계를 이루는 어휘끼리 연결하기
분류하기	배운 어휘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어휘 의미 이해를 확장함	- 제시된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어휘 분류하기
빈칸 채우기	의미적으로 적절한 어휘를 문장 안에 채워 쓰며 어휘 의미 및 용법 이해를 확장함	- 문장/대화/단락 속 빈칸에 들어갈 어휘 쓰기
문장 만들기	주어진 단어나 절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휘 용법 이해를 확장함	- 제시된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의 앞/뒤 절을 완성하기 - 제시된 어휘를 사용하여 그림에 알맞은 문장 만들기 - 제시된 어휘를 조합하여 문장 만들기
바꿔 쓰기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나 표현을 통해 어휘 의미 이해를 확장함	- 문장/대화/단락을 읽고 밑줄 친 어휘나 표현을 배운 어휘로 바꿔 쓰기
고쳐 쓰기	틀린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 쓰며 어휘의 의미 및 용법 이해를 확장함	- 문장/대화/단락을 읽고 잘못된 곳을 올바르게 고쳐 쓰기

맥락화 단계에 적절한 연습활동 유형에는 연결하기, 분류하기, 빈칸 채우기, 문장 만들기, 바꿔 쓰기, 고쳐 쓰기가 있다. 연결하기 유형의 세부 유형에

는 유의, 반의, 상·하위 등의 의미 관계가 있는 어휘끼리 연결하기, 연어 관계를 이루는 어휘끼리 연결하기가 해당된다. 인지 및 확인 단계에서의 연결하기와 다른 점은 학습 목표 어휘 자체만이 아닌 타 어휘와의 관계성을 통해 어휘의 의미와 용법 이해를 통해 어휘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분류하기 유형은 제시된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서 어휘를 분류하는 활동이다. 학습자들은 배운 어휘를 특정 조건과 기준에 따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어휘 의미 이해를 확장한다. 다만, 분류하기 유형은 앞서 교재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어휘를 범주화할 수 있는 명확한 조건이나 기준이 있어야만 수행이 가능한 유형이다.

빈칸 채우기 유형은 문장이나 대화, 단락 속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쓰는 활동으로 맥락화 단계에서 실제적인 예문을 제시하기 좋은 유형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운 어휘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제시하여 어휘 이해와 산출의 연계를 유도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의미적으로 적절한 어휘를 문장 안에 알맞은 형태로 채워 쓰며 어휘 의미 및 용법 이해를 확장한다.

문장 만들기 유형의 목표는 주어진 단어나 절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휘의 의미와 용법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다. 문장 만들기 유형의 세부 유형에는 제시된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의 앞/뒤 절을 완성하기, 제시된 어휘를 조합하여 문장 만들기, 제시된 어휘를 사용하여 그림에 알맞은 문장 만들기가 해당된다. 문장 만들기 유형은 빈칸 채우기 유형보다 심화된 담화 완성 연습이라고 볼 수 있다.

바꿔 쓰기 유형은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나 표현을 통해 어휘 의미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화나 단락 형식의 읽기 자료 속에 나타난 어휘나 표현을 배운 어휘로 바꿔 쓰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화나 단락의 맥락에 맞춰 배운 어휘를 적절히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어휘에 따라 학습 목표 주제에 맞춰 읽기 자료를 제시하거나 학습 목표 이외의 주제로 확장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쳐 쓰기 유형은 제시된 문장이나 대화, 단락 형식의 예문을 읽고 의미나 형태가 잘못된 곳을 올바르게 고쳐 쓰는 활동이다. 이때 밑줄을 통해 고쳐야

하는 부분을 표시하여 제시할 수 있다.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 쓰는 것은 학습자가 해당 어휘의 의미나 형태를 정확히 숙지한 상태에서 수행이 가능하다.

‘사용 단계’의 연습활동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어휘 사용을 연습하는 담화 또는 단락 차원에서의 연습 단계이다. 이때 해당 연습활동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완전한 문장을 산출하여 학습 목표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최종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과정을 기능 수행 전 활동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표 4-4] ‘사용 단계’ 연습활동의 유형

	목표 및 특성	세부 유형
대화하기	주어진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하여 실제적으로 표현함	- 제시된 주제로 짝끼리 대화하기
의견 표현하기	주어진 주제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본인의 의견을 배운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함	- 제시된 주제나 질문에 대한 의견 말하기 - 제시된 주제나 질문에 대한 의견 쓰기
설명하기	주어진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배운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함	- 제시된 자료를 설명하는 말하기 - 제시된 자료를 설명하는 글쓰기

사용 단계에 적절한 연습활동에 유형에는 대화하기, 의견 표현하기, 설명하기가 있다. 사용 단계의 연습활동은 학습 목표에 따른 기능 수행 연습을 목표로 하기에 이때 제시되는 주제나 담화 상황은 학습 목표 주제에 부합해야 한다. 대화하기 유형은 제시된 주제로 짝끼리 대화하는 활동이다. 학습자는 주어진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하여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의견 표현하기 유형과 설명하기 유형은 말하기와 쓰기 활동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먼저 의견 표현하기 유형은 학습자가 주어진 주제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본인의 의견을 배운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활동이다. 설명하기 유형은 학습자가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배운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활동이다. 의견 표현하기 유형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점이라면 설명하기 유형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2장에서 정리한 어휘 연습활동의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이번 절에서 제시한 어휘 연습활동의 유형이 더욱 세분화되었다. 바꿔 쓰기와 고쳐 쓰기가 추가되고, 2장에서의 구어 산출하기와 문어 산출하기는 연습활동 단계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어휘 교체 말하기, 대화하기, 의견 표현하기, 설명하기로 제시하였다. 특히 사용 단계에서 제시한 대화하기, 의견 표현하기, 설명하기 유형은 말하기, 쓰기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유형을 구분하기보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는 주제나 상황에 따라 구분하고자 하였다. 연습활동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제시한 유형은 반드시 해당 단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 목표 어휘의 성격이나 주제 등에 따라 여러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표 4-5] 연습활동 유형별 활용 가능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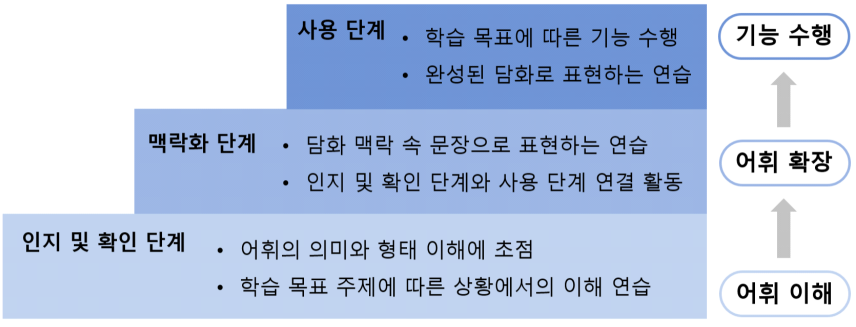
	인지 및 확인 단계	맥락화 단계	사용 단계
선택하기	O	-	-
연결하기	O	O	-
순서 매기기	O	O	-
어휘 교체 말하기	O	O	-
분류하기	O	O	-
빈칸 채우기	-	O	-
문장 만들기	-	O	-
바꿔 쓰기	O	O	-
고쳐 쓰기	-	O	-
대화하기	-	O	O
의견 표현하기	-	-	O
설명하기	-	-	O

인지 및 확인 단계와 맥락화 단계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한 유형으로는 연

결하기, 순서 매기기, 어휘 교체 말하기, 분류하기, 바꿔 쓰기가 있다. 대화하기 유형은 맥락화 단계와 사용 단계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 유형을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연습활동을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어휘 교육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어휘 이해 및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해 어휘 연습 단계에 따라 학습자가 점진적으로 어휘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4.2.2 단계별 연습활동 구성의 예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어휘 연습활동의 단계는 '인지 및 확인 단계 – 맥락화 단계 – 사용 단계'의 순서를 따른다. 인지 및 확인 단계에서는 어휘 자체의 의미와 형태 이해에 초점을 두고 학습 목표 주제 따른 상황 속에서의 연습을 통해 어휘 이해를 목표로 한다. 맥락화 단계에서는 다양한 맥락에 맞춰 배운 어휘를 적절히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학습 목표 주제 외 다양한 주제와 상황을 확장하여 제시하기도 하며, 배운 어휘를 맥락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로 설정한 기능 수행을 목표로 하여 학습자가 배운 어휘를 완성된 담화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각 단계에 따른 어휘 연습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습자는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마치 계단식으로 점차 쌓아 나가게 된다. 최종적인 사용 단계에서 목표하는 기능 수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어휘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4-1] 어휘 연습활동 구성 개요

이러한 단계의 순서와 목표에 따라 단계별 연습활동 구성의 예시를 제시하기 위해 먼저 학습자 수준과 어휘 주제, 학습 목표, 어휘 및 표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3급 후반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 단원의 어휘 연습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어휘 학습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면접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수행을 학습 목표로 삼았다. 어휘 및 표현은 '근무 조건'과 '업무 역량' 두 어휘장으로 나뉜다. '근무 조건' 어휘장에 해당하는 어휘는 '담당 업무, 근무 시간, 시급, 연령, 경력'이며, '업무 역량' 어휘장에 해당하는 표현은 '경험이 많다, 업무 처리가 빠르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자격증이 있다, 외국어 실력이 좋다, 컴퓨터를 잘 다루다'로 총 11개의 어휘 및 표현을 학습한다.

[표 4-6] 학습자 수준 및 어휘 학습 내용 설정

학습자 수준	3급 후반	
어휘 주제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	
학습 목표	배운 어휘를 사용해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면접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어휘 및 표현	근무 조건	담당 업무, 근무 시간, 시급, 연령, 경력
	업무 역량	경험이 많다, 업무 처리가 빠르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자격증이 있다, 외국어 실력이 좋다, 컴퓨터를 잘 다루다

이와 같이 설정한 학습 목표와 어휘에 대한 연습활동은 총 4개로 구성하였다. 인지 및 확인 단계의 연습활동은 근무 조건, 업무 역량 어휘장마다 1개씩 총 2개, 맥락화 단계는 두 어휘장을 합친 1개의 연습활동으로, 사용 단계는 배운 어휘를 통합하여 연습하는 1개의 연습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활동 1과 활동 2를 통해 학습 목표 어휘를 이해하고 활동 3을 통해 어휘 맥락화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활동 4에서 배운 어휘를 활용하여 학습 목표에 따른 실질적인 기능 수행을 연습한다. 각 단계의 연습활동 유형은 앞 절에서 제시한 단계별 연습활동 유형과 유형별 활용 가능 단계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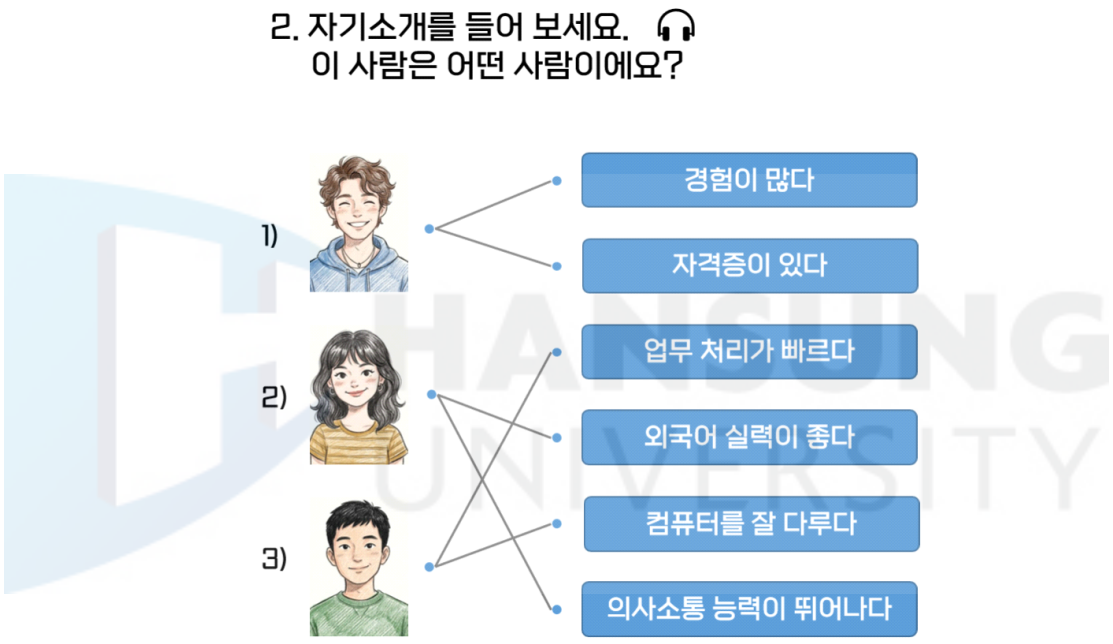
(1) 인지 및 확인 단계

활동 1은 ‘근무 조건’ 어휘장에 대한 인지 및 확인 단계의 선택하기 활동이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앱의 모집 공고를 이미지로 구현하여 실제성 있는 매체 담화 텍스트를 활용한다. PC보다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앱 이미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보기에서 알맞은 어휘를 선택하여 모집 공고 텍스트를 완성하는 활동이다.



[그림 4-2] 활동 1 인지 및 확인 단계 연습활동[3)]

활동 2는 ‘업무 역량’에 대한 인지 및 확인 단계의 연결하기 활동이다. 듣기 기능과 통합한 활동으로 자신의 업무 역량을 소개하는 음성을 듣고 해당하는 표현에 연결하는 활동이다. 문제당 2개의 표현에 연결하도록 구성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손님과도 대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등 학습 표현을 학습자들이 이미 배워서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쉬운 표현으로 제시하여 해당하는 업무 역량 표현에 연결하도록 한다.



[그림 4-3] 활동 2 인지 및 확인 단계 연습활동[4)]

해당 활동을 위한 듣기 음성의 스크립트는 아래 [표 4-3]과 같이 제작하였다. 1번은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 상황을 주제로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로 구성하였으며, ‘경험이 많다’, ‘자격증이 있다’ 두 표현을 연습한다. 2번은 외국인이 많이 오는 식당의 아르바이트 면접 상황을 주제로 외국어 실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이야기하는

3) 활동 1에 삽입된 이미지 제작에 생성형 AI가 활용되었음.

4) 활동 2에 삽입된 이미지 제작에 생성형 AI가 활용되었음.

대화로 구성하였으며, ‘외국어 실력이 좋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두 표현을 연습한다. 3번은 일반 사무와 같은 아르바이트 면접 상황을 주제로 컴퓨터 활용 능력과 빠른 업무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로 구성하였으며, ‘컴퓨터를 잘 다루다’, ‘업무 처리가 빠르다’ 두 표현을 연습하게 된다.

[표 4-7] 활동 2 듣기 스크립트

1) 가: 우리 카페에 지원하기 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나: 네, 편의점에서 1년 동안 일했고, 식당에서도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지난달에 시험을 봐서 합격했습니다. 2) 가: 우리 식당에는 외국인 손님들이 자주 오시는데 괜찮을까요? 나: 네, 저는 영어와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제 생각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편입니다. 3) 가: 사무실에서 문서 작성 업무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근무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을까요? 나: 저는 대학생 때부터 컴퓨터로 보고서를 많이 써서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을 다른 사람보다 일찍 끝내는 편입니다.

(2) 맥락화 단계

활동 3은 ‘근무 조건’과 ‘업무 역량’ 두 어휘장을 통합한 맥락화 단계의 빈칸 채우기 활동이다. 먼저 문장 속 빈칸에 배운 어휘나 표현을 쓰고 해당 문장이 대화문 속에서 삽입되어야 하는 곳을 찾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배운 어휘를 문장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습에서 나아가 학습 주제와 관련된 면접 상황 대화문을 읽고 빈칸의 앞뒤 맥락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담화를 완성하는 연습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인지 및 확인 단계에서 확장된 어휘 연습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 단계 연습활동을 수행하기 전 단계로서 배운 어휘를 맥락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활동 3에서 제시된 대화문은 활동 4 대화하기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학습자에게 예시 대화문으로 제시되어 도움을 줄 수 있다.

3. 빈칸에 알맞은 단어와 표현을 쓰고
대화 안에서 문장이 들어가야 할 곳의 기호를 쓰세요.

1) 저는 업무 처리가 빠른 편이라서 바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C)

2) 혹시 4시부터 일하는 것으로 근무 시간 을/를 바꿀 수 있나요? (D)

3) 2년 동안 닭갈비집 주방에서 근무했던 경력 이/가 있습니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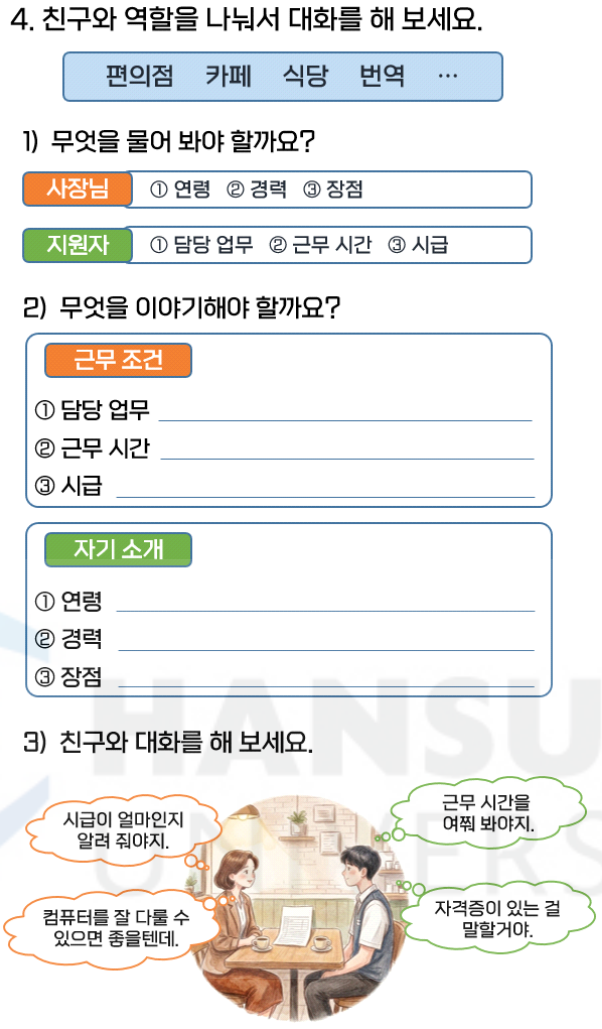
4) 한식과 중식 조리 자격증이 있 고 요리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B)

가: 우리 한식당 주방 아르바이트 지원하신 분이지요?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나: _____ (A) _____
가: 주방에서 일을 이미 해 보셨네요.
주방 일을 하기 위해 따로 준비한 게 있어요?
나: _____ (B) _____
가: 요리 실력이 좋으시겠어요.
주말 저녁에는 손님이 많은데 일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나: _____ (C) _____
가: 좋아요. 이번 주 주말부터 나오세요.
3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면 돼요.
나: _____ (D) _____
가: 네, 그럼 4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맞춰 줄게요.
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림 4-4] 활동 3 맥락화 단계 연습활동

(3) 사용 단계

활동 4는 사용 단계의 대화하기 활동이다. 앞서 수행한 연습활동을 바탕으로 '근무 조건'과 '업무 역량' 두 어휘장을 통합하여 학습 목표에 따른 기능 수행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배운 어휘를 사용해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면접 상황에서의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에 따라 짝끼리 면접 상황에서의 대화를 연습한다.



[그림 4-5] 활동 4 사용 단계 연습활동[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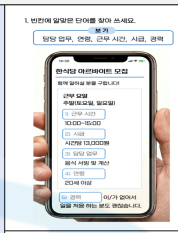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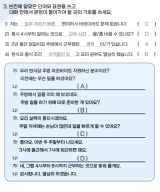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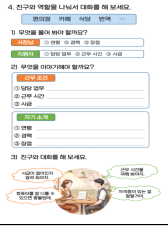
해당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원하는 직종을 정하고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지원자로 역할을 나눈다. 그리고 각각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자신의 정보를 간단히 메모하여 정리한다. 하단에는 담화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과 함께 생각 풍선을 제시하여 연습 활동 수행이 어려운 학습자를 돕는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근무 조건'과 '업무 역량' 어휘와 표현을 모두 사용하여 스스로 완성된 담화로 표현하는 연

5) 활동 4에 삽입된 이미지 제작에 생성형 AI가 활용되었음.

습을 한다. 이러한 기능 수행을 목표로 하는 연습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배운 어휘를 교실 밖에서의 실제 상황에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어휘 연습활동 구성의 예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 4-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계 순서에 따라 구성한 각 활동의 목표 및 특성과 적용된 연습활동 구성 원리를 정리하였다.

[표 4-8] 어휘 연습활동 구성 예시 종합

<table>
<tr><th colspan="2">연습활동 단계</th><th>목표 및 특성</th><th>연습활동 구성 원리</th><th rowspan="5">- 이해-산출의 원리
- 단계 설정의 원리
- 단계적 절차의 원리</th></tr>
<tr><td rowspan="2">인지 및 확인 단계</td><td></td><td>- 매체 담화 텍스트 활용
- 텍스트를 통한 어휘 의미 및 형태 확인</td><td>- 배경지식 연계의 원리
- 실제성의 원리</td></tr>
<tr><td></td><td>- 듣기 기능 통합 활동
- 대화 음성을 통한 어휘 의미 및 형태 확인</td><td>- 배경지식 연계의 원리
- 언어기능 통합의 원리</td></tr>
<tr><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맥락화 단계</td><td></td><td>- 담화 맥락 속 문장에서의 어휘 이해 및 표현 연습
- 예시 대화문을 통해 이후 활동에 도움 제시</td><td>- 배경지식 연계의 원리
- 반복성의 원리</td></tr>
<tr><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용 단계</td><td></td><td>- 아르바이트 면접 대화하기
- 사전 준비 활동 제시
- 완성된 담화 표현 연습</td><td>- 유의미적 산출 활동의 원리
- 반복성의 원리
- 실제성의 원리</td></tr>
</table>

활동 1부터 활동 4까지 구성된 연습활동은 각각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사용 단계의 연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

성된다. 인지 및 확인 단계에서 배운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맥락화 단계에서 배운 어휘를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사용 단계의 활동 4는 실생활에서 학습자가 실제로 겪을 만한 의사소통 상황을 재현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실질적인 어휘 능력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HANSUNG UNIVERSITY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을 통해 학습자가 배운 어휘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어휘 연습활동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급격한 어휘 학습량 증가로 어휘 학습 부담을 크게 가지는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실 안에서의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연습활동에 주목하여 교실 안에서의 어휘 연습을 통해 교실 밖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어휘 사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어휘 연습활동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중급 통합교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어휘 연습활동 구성 원리와 단계별 어휘 연습활동 유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 연습활동 구성 예시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어휘 연습활동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목표와 어휘 능력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 교수·학습의 단계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어휘 활동의 유형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이론 검토를 통해 마련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판하여 현재 사용 중인 4종의 교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교재 분석 기준은 크게 6개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연습활동의 단계별 구성, 둘째는 연습활동 유형의 다양성, 셋째는 학습 목표 어휘의 반복 활용 여부, 넷째는 어휘 배경지식을 활용한 연계 학습 유도, 다섯째는 언어기능과의 통합성, 여섯째는 실제성 있는 자료 활용이다. 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보완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앞선 교재 분석 결과와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어 어휘 연습활동의 구성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습활동 유형과 어휘 연습활동의 구성 예시를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향상 시키고 교실 안에서 배운 어휘를 교실 밖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휘 연습활동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해-산출의 원리로,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배운 어휘를 이해하고 스스로 산출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연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유의미적 산출 활동의 원리로, 유의미한 연습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실생활에서의 기능 수행을 실현하는 어휘 연습활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는 단계 설정의 원리로, 어휘 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교실 안에서의 어휘 연습활동은 '인지 및 확인 단계', '맥락화 단계', '사용 단계'의 각 단계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는 단계적 절차의 원리로, 어휘 연습활동은 '인지 및 확인 단계-맥락화 단계-사용 단계' 세 단계의 순서에 따라 학습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반복성의 원리로, 학습자가 연습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배운 어휘를 여러 번 접하고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여섯째는 배경지식 연계의 원리로, 학습자의 어휘 습득을 돕기 위해 기존에 배운 어휘를 활용하여 어휘 배경지식과 연계된 연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곱째는 언어기능 통합의 원리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어휘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언어기능과 통합된 어휘 연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덟째는 실제성의 원리로, 학습 목표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을 위해 실제성 있는 의사소통 담화 상황에서의 연습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의 어휘 연습활동 구성 원리에 따라 각 어휘 연습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의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의 어휘 주제로 실제 어휘 연습활동 구성의 예시를 보였다.

본 연구는 어휘 교육 방안 연구의 범위에서도 특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휘 연습활동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또한 넓고 깊은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해 단계적인 어휘 연습활동을 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며 교실 현장에서 의미 있는 어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시로 구성하여 제시한 어휘 연습활동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휘 학습량 증가로 인해 어휘 학습에 큰 부담을 느끼는 중급 단계 학습자를 고려하여 범위를 한정하여 교재를 분석하였지만, 연구 결과가 초급과 고급 어휘 교수·학습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어휘 교육 방안 연구와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어휘 교육이 더욱 구체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기 위한 후속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HANSUNG UNIVERSITY

참 고 문 헌

강현화·홍혜란. (200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학습용 워크북 개발 모형 연구 -그림 어휘 사전 워크북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0(3), 1-30.

강현화. (2013).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의 이론과 실제. 『언어와 문화』, 9(3), 1-38.

강현화·원미진. (2017). 『한국어교육학의 이해와 탐구』. 서울: 한국문화사

고신우. (2017).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유형 연구".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본관. (201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27-59.

구본관 외. (2014). 『어휘 교육론』. 서울: 사회평론

김광해. (1997). 어휘력과 어휘력의 평가. 『선청어문』, 25, 1-29.

김명광. (2017). 외국인 학습자 대상 어휘력 진단과 측정 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1(1), 43-76.

김윤주. (2022). 언어-내용 통합 KSL 교재를 위한 학습활동 연구 -학습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94), 179-212.

김지영. (2004). 한국어 어휘 교육 항목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어 교육』, 15(2), 93-115.

남상은. (2011). “어휘 학습 전략이 어휘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경숙, 윤수정. (2020).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단어 내용 구성. 『한국어문화교육』, 13(2), 1-25.

류승의·정대우. (2020).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 방안 -어종과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육』, 13(2), 25-50.

류향화. (2017). "아동 대상 한국어 어휘·문법 학습활동 유형 개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금현. (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연어(連語) 학습 방안. 『국어교

육』, (109), 217-251.
문금현. (2011). 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7-48.
민병곤 외. (2020). 『한국어 교육학 개론』. 서울: 태학사
박건숙. (2006).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 연구. 『국어교육연구』, 17, 427-481.
박배식. (2022). 한국어 어휘의 특성에 따른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연구』, (17), 23-46.
박수현. (2008). "학습 전략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재의 단원 구성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명선. (2004). 어휘 교육의 목표로서의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3), 263-296.
신명선. (2008). 『의미, 텍스트, 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신형욱. (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휘 교수·학습 방안 제안 -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1(1), 197-224.
심지연. (2023). "한국어 교육에서의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미정. (2004). 한국어 교육용 어휘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15(3), 145-168.
오은화. (2019). "중급 한국어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미진. (2013).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 변인 연구: 이해어휘와 표현어휘 관계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9(2), 193-214.
이경. (2015). "담화 차원에서의 한국어 어휘 유창성 신장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보라미 외. (2020). 『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이영숙. (1997). 어휘력과 어휘 지도: 어휘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선청어

문』, 25, 189-208.
이유경. (2018). 한국어 교재의 어휘 제시 양상에 대한 연구 -1980년대 이후에 출판된 교재를 중심으로-.『이중언어학』, 73, 267-295.
이은영. (201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중심 교육 방안 연구.『언어학연구』, 20(2), 121-137.
이정민·김영주. (2010).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과 언어 능력의 상관관계 연구.『응용 언어학』, 26(2), 27-49.
이해영. (2006). 한국어 교재를 위한 어휘 및 문법 학습 활동 유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25-56.
정운규. (2021). "한국어 쓰기에서 응집성 강화를 위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현용. (2000). “어휘 중심 한국어 교육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혜연·우인혜. (2022). 어휘장이론을 활용한 초성 게임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6), 243-257.
한정일. (1999).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예인·조현용. (2023).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동향 -최근 10년간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20(1), 211-249.
Brown·Payne, M. E. (1994). “Five Essential Steps of Processes in Vocabulary Learning.” Paper presented at the TESOL Convention. Baltimore. MD.
Laufer, B. (1998), The development of passive and active vocabulary: same or different?. *Applied Lomguistics*, 19(2), 255-271.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한국어 교재

고려대학교. (2020).『고려대 한국어. 3A』.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고려대학교. (2020).『고려대 한국어. 3B』.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고려대학교. (2021).『고려대 한국어. 4A』.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고려대학교. (2021).『고려대 한국어. 4B』.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2023).『서울대 한국어+ : 3A Student's book』.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2023).『서울대 한국어+ : 3A Workbook』.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2023).『서울대 한국어+ : 3B Student's book』.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2023).『서울대 한국어+ : 3B Workbook』.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2023).『서울대 한국어+ : 4A Student's book』.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2023).『서울대 한국어+ : 4A Workbook』.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2023).『서울대 한국어+ : 4B Student's book』.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2023).『서울대 한국어+ : 4B Workbook』.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찬규. (2018).『(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3(상)』. 서울: 중앙대학교
이찬규. (2018).『(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3(하)』. 서울: 중앙대학교
이찬규. (2018).『(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워크북 3』. 서울: 중앙대학교
이찬규. (2018).『(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4(상)』. 서울: 중앙대학교
이찬규. (2018).『(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4(하)』. 서울: 중앙대학교
이찬규. (2018).『(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워크북 4』. 서울: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2019).『한양 한국어. 3-1』. 서울: 하우
한양대학교. (2019).『한양 한국어. 3-2』. 서울: 하우
한양대학교. (2019).『한양 한국어. 3 워크북』. 서울: 하우

한양대학교. (2021).『한양 한국어. 4-1』. 서울: 하우
한양대학교. (2021).『한양 한국어. 4-2』. 서울: 하우
한양대학교. (2021).『한양 한국어. 4 워크북』. 서울: 하우

HANSUNG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Design of Vocabulary Practice Activities to Improve the Vocabulary Ability of Korean Language Learners -Focusing on Intermediate-Level Learners-

Jeong, Hye-Li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methods for organizing vocabulary practice activities that enable Korean language learners to enhance their vocabulary proficiency and practically utilize learned vocabulary in real communicative situations. In particular, intermediate learners often face a heavy burden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volume of vocabulary, which can lead to a learning plateau.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framework for organizing vocabulary practice activities that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intermediate Korean language classrooms.

Korean vocabulary education aims to improve learners' vocabulary proficiency. In alignment with the ultimate go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enhancing communicative competence—learners' vocabulary

proficiency must extend beyond merely accumulating lexical knowledge; it must be manifested in actual communicative context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designing meaningful vocabulary practice activities within the educational setting to bridge the gap between vocabulary practice and real-world language use.

Consisting of five chapter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for organizing vocabulary practice activities based on theoretical reviews and an analysis of existing textbooks. Chapter 2 reviews the goals of vocabulary education and vocabulary proficiency,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the stages of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as well as types of practice activities. Chapter 3 analyzes intermediate integrated textbook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vocabulary education. The analysis is based on six criteria: step-by-step organization of practice activities, diversity of activity types, repetitive use of target vocabulary, promotion of linked learning using vocabulary background knowledge, integration with language skills, and the use of authentic materials. Based on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textbook analysis, Chapter 4 establishes eight principles for organizing Korean vocabulary practice activities.

First, the Principle of Comprehension-Production dictates that classroom practice activities should support learners from the comprehension stage through to independent production. Second, the Principle of Meaningful Production Activities requires that vocabulary practice be structured around performing real-life functions to ensure meaningful practice. Third, the Principle of Stage Setting states that classroom vocabulary activities should be structured according to three distinct stages based on the cognitive process of vocabulary acquisition: 'Recognition and Identification,' 'Contextualization,' and 'Use.' Fourth, the Principle of Step-by-Step Procedure asserts that vocabulary practice

activities must be presented to learners in a sequential order: 'Recognition and Identification–Contextualization–Use.' Fifth, the Principle of Repetition ensures that activities are designed so that learners encounter and practice the target vocabulary multiple times. Sixth, the Principle of Linking Background Knowledge suggests providing practice activities connected to learners' prior lexical knowledge to facilitate acquisition. Seventh, the Principle of Language Skill Integration demands that vocabulary activities be integrated with listening,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skills to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in real-world contexts. Eighth, the Principle of Authenticity requires practice activities to be set within authentic communicative discourse to help learners understand and adapt to the contexts where the target vocabulary is actually used.

Based on these eight principles, this study provides specific types of vocabulary practice activities and practical examples that can be utilized at each stage: 'Recognition and Identification,' 'Contextualization,' and 'Use.'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specifically focuses on classroom-based vocabulary practice activities within the broader field of vocabulary education methodology, aiming to design meaningful, step-by-step practice activities to foster practical vocabulary proficiency.

【Keywords】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Vocabulary Education, Vocabulary Education Methods, Vocabulary Proficiency, Vocabulary Practice Activities, Stages of Vocabulary Practice, Intermediate Learners